



2023 KICCE 정책세미나

아버지의 행복한 육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2023. **11. 7.**(화) 15:30~17:30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아버지의 행복한 육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15:30~17:30

장소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사회: 이재희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시간	일정
15:30~15:35	개회 환영사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	
15:35~16:45	발표 1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의 자녀돌봄시간 및 부부의 돌봄배분 분석 조미라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2 아빠 육아달인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사례 이현아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발표 3 '돌봄자', 새로운 아버지됨으로의 전환과 시간정책 박은정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지정토론	
16:45~17:15	토론 좌장 : 김은설 실장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 함선유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형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민정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15~17:25	종합토론
17:25~17:30	폐회

CONTENTS

아버지의 행복한 육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목차

환영사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

- 발표 1 |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의 자녀돌봄시간 및 부부의 돌봄배분 분석 1
/ 조미라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발표 2 | 아빠 육아달인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사례 21
/ 이현아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 발표 3 | ‘돌봄자’, 새로운 아버지됨으로의 전환과 시간정책 29
/ 박은정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지정토론

- 토론 1 |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 자녀돌봄시간 및 부부의 돌봄배분 분석”에 대한 토론문 53
/ 함선유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2 | 남성 양육자의 돌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 55
/ 이선형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토론 3 | ‘돌봄자, 새로운 아버지됨으로의 전환과 시간정책’에 대한 토론문 .. 57
/ 강민정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정책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버지들의 돌봄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 돌봄은 아버지가 '도와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동일하게 아버지도 돌봄의 주체로서 동일한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이며, 아버지들 스스로도 돌보는 아버지의 역할을 수용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들의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논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는 남성들이 돌보는 아버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대상 자녀돌봄 지원 방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평등한 돌봄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연구소의 박은정 박사님과 조미라 박사님, 그리고 아버지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사례를 발표해주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현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선유 부연구위원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선형 연구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를 맡으신 이재희 박사님, 좌장을 맡으신 김은설 박사님과 이번 정책세미나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아버지들의 자녀돌봄 시간지원을 위한 정책방안들이 아버지들의 행복한 육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주제발표 1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의 자녀돌봄시간 및 부부의 돌봄배분 분석

조미라 부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2023 육아정책연구소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의 자녀돌봄시간 및 부부의 돌봄배분 분석

2023.11.7

조미라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2023 육아정책연구소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의 자녀돌봄시간 및 부부의 돌봄배분 분석

CONTENTS

- 01 들어가며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배경
- 02 분석자료
- 03 분석방법
- 04 분석결과
- 05 마무리 - 요약 및 시사점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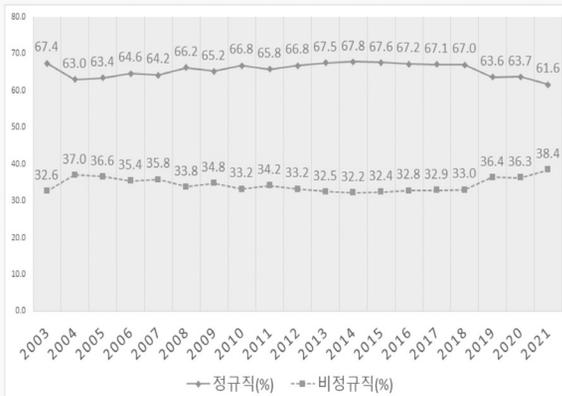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동시장이 다변화되고 비정형적인 노동형태가 확대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집단의 규모 추정,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근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이들의 자녀양육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 특히 비정형 노동자는 비표준적인 근무시간(non-standard work time)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표준적 사회적 리듬에 맞춘 시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수 있음.
 - 한국사회 자녀양육기에 있는 기혼 남녀의 시간사용(time-use)은 여전히 매우 다른 패턴을 보임. 자녀양육기 부부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한 공동자원이며 자녀양육과 일에 대한 시간활용과 배분은 매우 논쟁적인 영역이기도 함.
- ✓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의 자녀돌봄시간과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배분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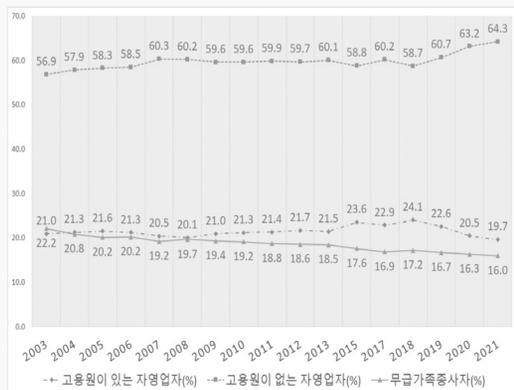
고용형태의 다양화

●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변화(임금근로자 중)



출처: 박은정,조미리,윤지연,류연규,윤자영(2022)의 p.36에서 발췌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변화(비임금근로자 중)



출처: 박은정,조미리,윤지연,류연규,윤자영(2022)의 p.37에서 발췌

들어가며

고용형태의 다양화

● 비표준적 고용형태

구분	정의	
임시직	고용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 관계 -일용노동, 계절노동, 임시직, 프로젝트 기반 기간제	
시간제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사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고용형태	
비전형 근로	파견근로	노동자가 고용 대행 회사 또는 하청 계약자와 임노동 계약관계를 맺고 고용된 후, 제 3의 사용자 또는 사업체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형태
	용역, 하청	고용 대행 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고용 대행 회사가 직접 지휘 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형태
	호출근로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이 생겼을 때 단기간(며칠 또는 몇 주 씩) 일하는 고용형태 -영시간 계약
종속 자영업	민법상 도급계약을 통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노무나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기업에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인 노동자	
자영업	급여를 통한 보상이 아닌, 이익을 창출하는 비급여 고용 -고용주, 생산자 협동조합 회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출처: 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윤지영(2022)의 p.45에서 발췌

들어가며

고용형태의 다양화

● 임금근로자 성별·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실태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가입	미가입	잘모름	가입	미가입	잘모름	가입	미가입	잘모름
정규직	90.67	9.06	0.27	92.13	7.79	0.08	88.08	11.32	0.6
한시직	72.59	26.75	0.66	71.61	27.27	1.12	73.59	26.21	0.2
시간제	28.99	70.51	0.5	20.3	78.68	1.02	32.29	67.4	0.3
파견	95.63	4.37	0	100	0	0	93.32	6.68	0
용역	89.42	9.48	1.1	88.89	9.11	2.01	90.07	9.93	0
가정내 근로자	36.58	63.42	0	100	0	0	11.97	88.03	0
일일단기 근로자	15.94	83.16	0.9	13.52	86.07	0.4	23.3	74.29	2.41
합계	77.16	22.42	0.42	79.28	20.38	0.34	74.12	25.36	0.53



출처: 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윤지영(2022)의 p.46에서 발췌

들어가며

돌봄권과 자녀돌봄시간

- 돌봄권, 돌봄 주류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 돌봄을 정치적 관심사로 논의해야 함. 노동권과 돌봄권의 통합적 정책 추구가 필요함
 - 돌봄을 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care), 돌볼 권리(right to care), 위 두 가지 권리에 대해 논하는 공적인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 공사의 융합(add and stir).
- 노동권과 돌봄권의 부조화
 - “돈과 양육의 딜레마”, 노동지위에 따른 개인자원이 차등적임. 돌봄에 대처하는 방식이 매우 다름
 - 일부 고용형태 종사자는 자녀돌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택배업의 경우 20,30대 젊은 고학력층의 기교식 일자리로 가능. 50대는 이혼한 경우가 많음. 40대 기혼 1%가 안됨. 직접양육이 거의 안됨. 자포자기하거나 결혼에 대한 희망이 없음.”
- 시간사용에 있어 여전한 젠더 차이. 한편, 아버지양육의 요구 및 중요성 부각
 - 젠더와 계층성의 교집합적 모순: 젠더에 더해 계층성의 영향이 커짐.

분석자료

분석자료 및 특성

● 분석자료

-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실태 및 욕구조사>
 - in 박은정·조미라·윤지연·류연규·윤자영(2022)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1)
- 조사대상: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부모(휴직자 제외) 1,631명
- 조사시기: 2022.8.3~8.26
- 조사방법: 웹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 비정규직 및 비임금근로자 800사례 이상, 1인 자영업자 최소300사례 이상, 남녀 각각 800사례 이상으로 의도적 표집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1,637)		
성별		배우자 유무	
남자	51.1 (837)	배우자 있음	95.2 (1,558)
여자	48.9 (800)	배우자 없음	4.8 (79)
응답자 연령		본인 근로소득	
35세 미만	15.1 (248)	100만원 미만	11.3 (185)
35-40세 미만	35.9 (588)	100-200만원 미만	15.3 (251)
40-45세 미만	41.5 (679)	200-300만원 미만	23.2 (380)
45세 이상	7.5 (122)	300-400만원 미만	20.6 (337)
평균연령	38.9세	400-500만원 미만	13.0 (313)
학력		500만원 이상	16.6 (271)
고졸 이하	12.6 (207)	거주지역	
전문대(2,3년제) 졸업	23.5 (384)	대도시	46.1 (75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51.6 (845)	중소도시	49.2 (805)
대학원 졸업 이상	12.3 (201)	읍면지역	4.8 (78)

분석자료

분석자료 및 특성

• 조사대상자의 자녀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자녀수		출생순위별 자녀 연령(평균)	
1명	45.4 (745)	첫째 자녀	6.3세
2명	47.3 (774)	둘째 자녀	4.7세
3명 이상	7.3 (118)	셋째 자녀 이상	3.9세
평균 자녀수	1.6명	막내 자녀 연령	
자녀 성별		만0~2세	23.4 (383)
남	79.6 (1,303)	만3~5세	40.7 (666)
여	83.2 (1,362)	만6~8세	35.9 (588)

• 조사대상자의 가구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맞벌이가구 여부	100.0 (1,637)	가구소득	
맞벌이(취업)	66.2 (1,083)	300만원 미만	9.2 (150)
맞벌이(휴직중)	10.7 (175)	300~400만원 미만	17.9 (293)
와벌이	23.1 (378)	400~500만원 미만	19.2 (314)
가구원수		500~600만원 미만	20.8 (340)
2인	1.2 (20)	600~700만원 미만	11.4 (187)
3인	40.6 (664)	700만원 이상	21.6 (353)
4인	46.4 (759)	법정 자소득가구	
5인	8.5 (140)	기초생활수급	0.7 (6)
6인 이상 가구	3.3 (54)	차상위계층 가구	1.1 (9)

• 조사대상자의 근로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1,637)	직종	
고용형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5.4 (416)
임금근로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9 (146)
정규직	40.0 (654)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5.3 (251)
비정규직	24.7 (405)	보건 의료직	6.9 (113)
비임금근로자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4 (8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9.5 (319)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4 (13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1.5 (188)	영업·판매·운전·운송직	17.0 (278)
무급가족종사자	4.3 (71)	간접·채굴직	4.6 (76)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		농림어업직	1.2 (19)
상용직	50.6 (829)	제조생산직	2.3 (37)
임시직	10.6 (173)	자영업	0.9 (14)
일용직	3.5 (57)	서비스직	1.9 (31)
근로시간 형태(임금근로자)		기타	1.8 (30)
시간제	17.6 (288)	현 일자리 근무경력	
전일제	47.1 (771)	0~5년	38.2 (625)
비정형 근로형태		6~10년	27.1 (444)
특수형태근로	15.0 (246)	11~15년	22.6 (370)
플랫폼 노동	3.4 (56)	16~20년	11.1 (181)
프리랜서	6.8 (112)	21년 이상	1.0 (17)
의외 1인 자영업자	7.3 (119)	현 일자리 근무기간	
사업체 규모		0~5년	66.6 (1,091)
1~29명	62.5 (1,023)	6~10년	18.9 (310)
30~299명	22.8 (373)	11~15년	10.8 (177)
300명 이상	14.7 (241)	16~20년	3.4 (55)
		21년 이상	0.2 (4)

분석방법

고용형태의 구분

임금/비임금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 정규/비정규	1. 정규직 2. 비정규직
-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 근로시간 형태	1. 시간제 2. 전일제
비임금근로자	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1인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
비정형근로	1. 특수형태근로 2. 플랫폼노동 3. 프리랜서

• 종사상지위

- 상용직: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②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으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 가능
- 임시직: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
②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1년 이내로 일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일용직: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②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③ 일정한 근무지 없이 이동하면서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근로시간형태

- 시간제: ①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② 같은 업무 종사자보다 적은 시간 동안 근무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
- 전일제: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근무

• 비정형근로

- 특수형태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독자적으로 근로시간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일임
- 플랫폼 노동: 온라인 사이트나 어플 등(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음
- 프리랜서: 일정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견대 계약을 맺어 일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제공함

- [참고]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실태 및 욕구조사>의 고용형태 관련 설문 구성 in 박은정·조미라·윤지연·류연규·윤자영(2022)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1)

구분	응답자 본인	
선문 4-2-1.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1. 임금근로자 ☞ 선문 4-2-2
	비임금근로자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선문 5 3.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선문 4-2-5 4. 무급가족종사자 ☞ 선문 5
선문 4-2-2.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1. 정규직 2. 비정규직
선문 4-2-3.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선문 4-2-4. 근로시간 형태**		1. 시간제 2. 전일제

선문 4-2-5.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비임금근로자비정규직인 경우에 응답)

1.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독자적으로 근로시간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일임. (특수형태근로)
2. 온라인 사이트나 어플 등(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음. (플랫폼 노동)
3. 일정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건마다 계약을 맺어 일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제공함. (프리랜서)
4. 이외 1인 자영업자
5. 해당 없음 → 기타 비정규직에 해당

선문 4. 현재 귀하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가장 긴 시간 일하는 일자리(주업)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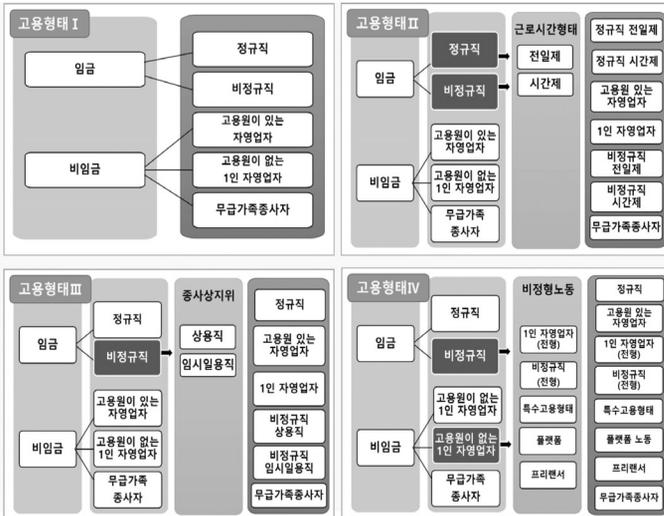
- * 1) 상용직: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②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으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 가능
- 2) 임시직: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
②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1년 이내로 일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일용직: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②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계 급여를 받는 경우
③ 일정한 근무지 없이 이동하면서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 1) 시간제: ①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② 같은 업무 종사자보다 적은 시간 동안 근무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
- 2) 전일제: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근무

분석방법

분석 개요

남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



- ◆ 본인의 자녀돌봄시간
 - 실제 자녀돌봄시간
 - 희망하는 자녀돌봄시간
 - 희망시간과 실제자녀돌봄시간의 차이
- ◆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배분
 -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분석방법

변수구성

• 종속변수

구분	변수명/구분	변수 내용
본인의 자녀돌봄시간	실제 자녀돌봄시간	응답자의 근무일 기준 자녀돌봄시간
	희망 자녀돌봄시간	응답자의 근무일 기준 희망하는 자녀돌봄시간
	희망-실제자녀돌봄시간 차이	희망 자녀돌봄시간 - 실제 자녀돌봄시간
부부의 돌봄배분 :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배우자 자녀돌봄시간	배우자의 근무일 기준 자녀돌봄시간
	부부 자녀돌봄시간	응답자 자녀돌봄시간 + 배우자 자녀돌봄시간
	부부 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응답자 자녀돌봄시간 - 배우자 자녀돌봄시간

육아정책연구소

• 독립변수

구분	변수명/구분	변수 내용
기본	고용형태 I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근로시간	고용형태 II	정규직 전일제/ 정규직 시간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전일제/ 비정규직 시간제/ 무급가족종사자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III	정규직 상용직/ 정규직 임시일용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비정형근로	고용형태 IV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전형)/ 비정규직(전형)/ 특수고용형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 통제변수

구분	변수명/구분	변수 내용
본인 및 가구특성	연령	35세미만/ 35-50세미만/ 40-45세미만/ 45세이상
	최종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600만원미만/ 700만원이상
육아 특성	맞벌이 여부	외벌이/ 맞벌이
	막내자녀 연령	막내자녀의 만 연령
	8세이하 자녀수	가구 내 8세이하 자녀의 수
	부부의 성인자녀돌봄자 여부	없음/ 있음

분석결과

'남성'의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시간 선형회귀분석 결과 - 고용형태 1 (정규/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실제자녀돌봄시간 (b)		희망자녀돌봄시간 (b)		희망-실제자녀돌봄시간 (b)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본인-배우자) (b)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0.615**	0.656**	0.661**	0.733**	0.0466	0.0773	-0.260	-0.253	0.351	0.403	0.872*	0.909*
1인자영업자	0.777***	0.704***	0.293	0.269	-0.484*	-0.435*	-1.007**	-0.681*	-0.314	0.0228	1.701***	1.384***
비정규직	0.595**	0.579**	0.506*	0.513*	-0.0885	-0.0667	-0.563	-0.192	0.0165	0.388	1.142*	0.771
무급가족종사자	0.257	0.266	0.596	0.584	0.339	0.317	-0.00243	0.670	0.254	0.936	0.259	-0.403
35-40세미만	-0.436	-0.371	-0.160	-0.109	0.276	0.262	1.442**	1.214*	0.984	0.843	-1.900**	-1.585**
40-45세미만	-1.014**	-0.787*	-0.569	-0.399	0.445	0.387	1.701**	1.138*	0.683	0.351	-2.718***	-1.924**
45세이상	-1.417***	-1.092*	-1.271**	-1.052*	0.147	0.0403	1.743*	1.305*	0.306	0.213	-3.180***	-2.398**
전문대졸	-0.305	-0.406	-0.135	-0.239	0.170	0.166	0.162	0.0683	-0.213	-0.337	-0.537	-0.474
대졸	-0.403	-0.494	0.0402	-0.0567	0.443	0.437	0.430	0.353	-0.0272	-0.141	-0.887	-0.846*
대학원이상	-0.228	-0.397	0.0440	-0.0425	0.272	0.355	-0.0684	-0.272	-0.429	-0.669	-0.292	-0.125
300-400만원미만	-0.221	-0.158	-0.471	-0.516	-0.250	-0.358	-0.322	-0.101	-0.543	-0.259	0.101	-0.0571
400-500만원미만	-0.158	-0.227	-0.493	-0.523	-0.335	-0.296	-0.972	-0.176	-1.215	-0.403	0.729	-0.0516
500-600만원미만	-0.543	-0.560	-0.702*	-0.708	-0.159	-0.148	-1.361**	-0.326	-1.933**	-0.886	0.790	-0.235
600-700만원미만	-0.395	-0.380	-0.568	-0.602	-0.173	-0.222	-2.036***	-0.202	-2.413***	-0.582	1.659*	-0.178
700만원이상	-0.348	-0.305	-0.517	-0.514	-0.170	-0.209	-2.558***	-0.641	-2.858***	-0.946	2.259***	0.336
맞벌이		0.261		0.143		-0.119		-3.084***		-2.822***		3.345***
막내자녀연령(연속변수)		-0.103**		-0.0819*		0.0208		-0.106		-0.209**		0.00357
8세이하자녀수(연속변수)		-0.0347		0.0341		0.0689		0.406*		0.372		-0.441*
부부외자녀돌봄자 있음		-0.0115		0.139		0.151		-1.193***		-1.205***		1.182***
Constant	3.910***	4.197***	4.756***	4.905***	0.845*	0.708	6.338***	7.577***	10.34***	11.77***	-2.341**	-3.380***
Observations	837	812	837	812	837	812	812	812	812	812	812	812
R-squared	0.076	0.091	0.047	0.062	0.022	0.025	0.077	0.293	0.053	0.206	0.102	0.291

주: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각각 정규직, 35세미만, 고졸이하, 300만원미만, (남성)외벌이, 부부외자녀돌봄자없는 경우임.

*** p<0.001, ** p<0.01, * p<0.05

육아정책연구소

분석결과

'여성'의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시간 선형회귀분석 결과 - 고용형태 1 (정규/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돌봄시간

	실제자녀돌봄시간 (b)		희망자녀돌봄시간 (b)		희망-실제자녀돌봄시간 (b)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본인-배우자) (b)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0.412	0.485	0.601	0.748*	0.188	0.262	0.308	0.250	0.789	0.736	0.172	0.235
1인자영업자	1.414***	1.403***	0.275	0.236	-1.139***	-1.167***	-0.106	-0.202	1.245**	1.201**	1.457***	1.606***
비정규직	1.299***	1.262***	0.291	0.267	-1.008***	-0.995***	0.0331	0.148	1.321***	1.411***	1.255***	1.114***
무급가족종사자	2.440***	2.577***	2.094***	2.120***	-0.346	-0.457	-0.208	-0.332	2.345***	2.245***	2.761***	2.909***
35-40세미만	-0.212	-0.0907	-0.583*	-0.569*	-0.371	-0.478	-0.246	-0.159	-0.436	-0.250	0.0556	0.0684
40-45세미만	-0.265	-0.0199	-0.570*	-0.620*	-0.305	-0.600	-0.359	-0.187	-0.590	-0.207	0.128	0.167
45세이상	-0.756	-0.200	-0.925*	-0.952*	-0.169	-0.751	-0.187	0.0239	-0.712	-0.177	-0.338	-0.224
전문대졸	0.201	0.233	0.232	0.427	0.0307	0.194	-0.723	-0.635	-0.399	-0.402	1.047*	0.868
대졸	0.233	0.216	0.203	0.392	-0.0300	0.176	-0.517	-0.434	-0.198	-0.218	0.836	0.650
대학원이상	0.331	0.242	0.237	0.365	-0.0937	0.122	-0.970*	-0.985*	-0.585	-0.742	1.354*	1.227*
300-400만원미만	0.279	0.0202	0.704	0.701	0.425	0.681	-0.642	-0.500	-0.510	-0.480	0.773	0.520
400-500만원미만	0.196	-0.160	-0.00947	-0.0548	-0.206	0.105	-1.386**	-1.071*	-1.345*	-1.231*	1.426*	0.911
500-600만원미만	-0.224	-0.611	0.435	0.381	0.659	0.991*	-0.913	-0.630	-1.337*	-1.240*	0.490	0.0193
600-700만원미만	-0.653	-0.980*	-0.301	-0.269	0.352	0.711	-1.612***	-1.252**	-2.434***	-2.231***	0.790	0.272
700만원이상	-0.439	-0.808	-0.0211	-0.0471	0.418	0.761	-1.173*	-0.783	-1.780**	-1.592**	0.565	-0.0247
맞벌이		1.356***		0.487		-0.869**		-1.539***		-0.183		2.895***
막내자녀연령(연속변수)		-0.0866		0.00322		0.0898		-0.167**		-0.253**		0.0802
8세이하자녀수(연속변수)		0.0759		-0.276		-0.352		-0.691***		-0.615*		0.767**
부부의자녀돌봄자 있음		-0.340		-0.0516		0.289		0.00939		-0.331		-0.350
Constant	4.982***	4.412***	5.666***	5.511***	0.684	1.099	4.699***	7.339***	9.764***	11.75***	0.365	-2.927**
Observations	800	765	800	765	800	765	765	765	765	765	765	765
R-squared	0.093	0.121	0.076	0.083	0.050	0.076	0.047	0.117	0.079	0.097	0.070	0.148

주: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각각 정규직, 35세미만, 고졸이하, 300만원미만, (여성)외벌이, 부부의자녀돌봄자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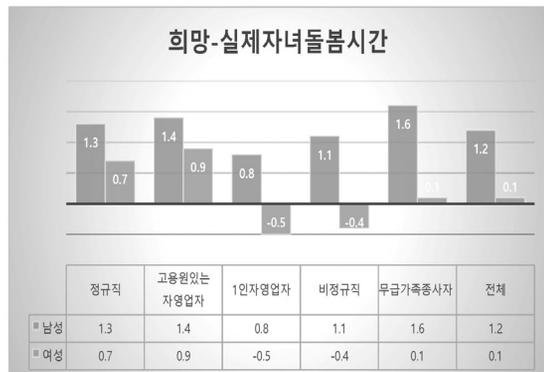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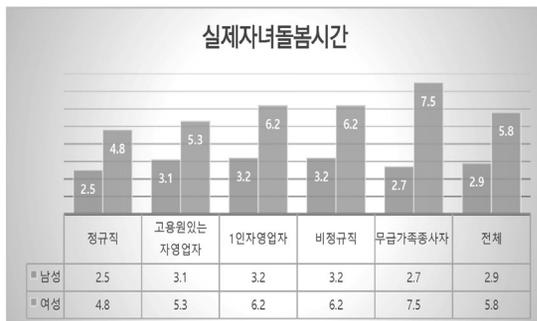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실제, 희망 자녀돌봄시간 추정 - 고용형태 1 (정규/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돌봄시간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배우자,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추정 - 고용형태 1 (정규/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17

분석결과

'남성'의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시간 선형회귀분석 결과 - 고용형태 2 (근로시간형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실제자녀돌봄시간 (b)		희망자녀돌봄시간 (b)		희망-실제자녀돌봄시간 (b)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본인-배우자) (b)	
정규직-시간제	0.523	0.505	0.147	0.0912	-0.376	-0.414	-0.914	-0.329	-0.365	0.176	1.462	0.834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636**	0.680**	0.668**	0.739**	0.0319	0.0595	-0.300	-0.271	0.335	0.409	0.934*	0.951*
1인자영업자	0.801***	0.731***	0.301	0.277	-0.500**	-0.454*	-1.051**	-0.703*	-0.332	0.0279	1.771***	1.434***
비정규-전일제	0.348	0.320	0.200	0.235	-0.147	-0.0854	0.0291	0.252	0.346	0.572	0.288	0.0681
비정규-시간제	1.154**	1.197***	1.128*	1.104*	-0.0265	-0.0929	-1.909**	-1.164	-0.712	0.0327	3.105***	2.361***
무급가족종사자	0.287	0.298	0.608	0.592	0.321	0.294	-0.0580	0.647	0.231	0.945	0.347	-0.348
35-40세미만	-0.410	-0.339	-0.132	-0.0789	0.278	0.260	1.363*	1.163*	0.942	0.825	-1.785**	-1.502*
40-45세미만	-0.991**	-0.756*	-0.546	-0.371	0.445	0.385	1.622**	1.091*	0.641	0.335	-2.602***	-1.847**
45세이상	-1.402***	-1.068*	-1.254**	-1.027*	0.148	0.0402	1.678*	1.266*	0.271	0.198	-3.084***	-2.333**
전문대졸	-0.311	-0.408	-0.123	-0.225	0.188	0.183	0.159	0.0523	-0.220	-0.356	-0.537	-0.461
대출	-0.375	-0.461	0.0670	-0.0301	0.442	0.431	0.361	0.307	-0.0631	-0.154	-0.785	-0.768
대학원이상	-0.213	-0.384	0.0654	-0.0247	0.279	0.359	-0.105	-0.299	-0.451	-0.683	-0.240	-0.0846
300~400만원미만	-0.208	-0.138	-0.475	-0.515	-0.267	-0.377	-0.352	-0.111	-0.554	-0.249	0.151	-0.0267
400~500만원미만	-0.119	-0.170	-0.470	-0.489	-0.351	-0.319	-1.075*	-0.241	-1.264	-0.411	0.886	0.0707
500~600만원미만	-0.549	-0.549	-0.717*	-0.707	-0.167	-0.158	-1.364**	-0.331	-1.932**	-0.880	0.797	-0.218
600~700만원미만	-0.366	-0.331	-0.555	-0.575	-0.188	-0.244	-2.106***	-0.255	-2.445***	-0.586	1.768**	-0.0760
700만원이상	-0.317	-0.253	-0.503	-0.485	-0.186	-0.232	-2.632***	-0.699	-2.891***	-0.952	2.373***	0.446
맞벌이		0.242		0.125		-0.117			-3.055***		-2.812***	3.297***
막내자녀연령(연속변수)		-0.102**		-0.0821*		0.0201		-0.106		-0.209**		0.00407
8세이하자녀수(연속변수)		-0.0169		0.0489		0.0658		0.381		0.364		-0.398
부부외자녀돌봄자 있음		-0.0235		0.136		0.160		-1.185***		-1.208***		1.161***
Constant	3.831***	4.077***	4.701***	4.825***	0.870*	0.748	6.546***	7.724***	10.44***	11.80***	-2.655**	-3.647***
Observations	837	812	837	812	837	812	812	812	812	812	812	812
R-squared	0.083	0.099	0.055	0.068	0.023	0.026	0.088	0.299	0.056	0.206	0.121	0.303

주: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각각 정규직-전일제, 35세미만, 고졸이하, 300만원미만, 외벌이, 부부외 성인자녀돌봄자 없는 경우임.

*** p<0.001, ** p<0.01, * p<0.05

분석결과

'여성'의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시간 선형회귀분석 결과 - 고용형태 2 (근로시간형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돌봄시간

	실제자녀돌봄시간 (b)		희망자녀돌봄시간 (b)		희망-실제자녀돌봄시간 (b)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본인-배우자) (b)	
정규직-시간제	1.957***	1.920***	0.410	0.399	-1.547**	-1.521**	-0.362	-0.397	1.559*	1.523*	2.283***	2.316***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705	0.770*	0.669	0.810*	-0.0360	0.0395	0.251	0.191	1.019	0.961	0.517	0.580
1인자영업자	1.715***	1.694***	0.345	0.299	-1.370***	-1.396***	-0.166	-0.264	1.485***	1.431***	1.817***	1.958***
비정규-전일제	0.245	0.297	-0.151	-0.0256	-0.396	-0.322	0.362	0.383	0.546	0.680	-0.177	-0.0863
비정규-시간제	2.159***	2.049***	0.569*	0.469	-1.590***	-1.579***	-0.177	-0.0288	1.958***	2.020***	2.312***	2.077***
무급가족종사자	2.778***	2.918***	2.175***	2.196***	-0.603	-0.722	-0.278	-0.404	2.615***	2.514***	3.171***	3.322***
35-40세미만	-0.224	-0.106	-0.589*	-0.574*	-0.364	-0.468	-0.245	-0.155	-0.432	-0.261	0.0590	0.0496
40-45세미만	-0.199	0.0168	-0.548*	-0.610*	-0.349	-0.626*	-0.382	-0.195	-0.528	-0.178	0.235	0.212
45세이상	-0.772	-0.285	-0.941*	-0.979*	-0.169	-0.695	-0.173	0.0452	-0.729	-0.240	-0.384	-0.330
전문대졸	0.218	0.291	0.234	0.441	0.0165	0.150	-0.734	-0.648	-0.359	-0.357	1.108*	0.938*
대졸	0.181	0.202	0.184	0.388	0.00291	0.186	-0.509	-0.431	-0.217	-0.228	0.801	0.633
대학원이상	0.347	0.307	0.238	0.380	-0.109	0.0731	-0.979*	-0.999*	-0.547	-0.692	1.410*	1.305*
300~400만원미만	0.215	0.00196	0.675	0.695	0.460	0.693	-0.632	-0.495	-0.533	-0.493	0.730	0.497
400~500만원미만	0.183	-0.138	-0.0127	-0.0464	-0.196	0.0919	-1.391**	-1.077*	-1.340*	-1.215*	1.443*	0.939
500~600만원미만	-0.100	-0.451	0.479	0.426	0.579	0.877	-0.958*	-0.667	-1.219*	-1.119	0.696	0.216
600~700만원미만	-0.409	-0.743	-0.219	-0.206	0.190	0.538	-1.677***	-1.306**	-2.248***	-2.049**	1.107	0.563
700만원이상	-0.211	-0.563	0.0442	0.0148	0.255	0.577	-1.233*	-0.838	-1.588*	-1.401*	0.878	0.276
맞벌이		1.227***		0.450		-0.778*		-1.509***		-0.281		2.736***
막내자녀연령(연속변수)		-0.0676		0.00831		0.0759		-0.171**		-0.239**		0.104
8세이하자녀수(연속변수)		0.0695		-0.278		-0.347		-0.689***		-0.620*		0.759***
부부외자녀돌봄자 있음		-0.276		-0.0333		0.243		-0.00572		-0.282		-0.271
Constant	4.600***	4.000***	5.577***	5.419***	0.977	1.419*	4.794***	7.427***	9.417***	11.43***	-0.170	-3.427***
Observations	800	765	800	765	800	765	765	765	765	765	765	765
R-squared	0.137	0.159	0.083	0.086	0.072	0.098	0.051	0.120	0.092	0.108	0.112	0.183

주: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각각 정규직-전일제, 35세미만, 고졸이하, 300만원미만, (여성) 외벌이, 부부의 성인자녀돌봄자 없는 경우임. *** p<0.001, ** p<0.01, * p<0.05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실제, 희망 자녀돌봄시간 추정 - 고용형태 2 (근로시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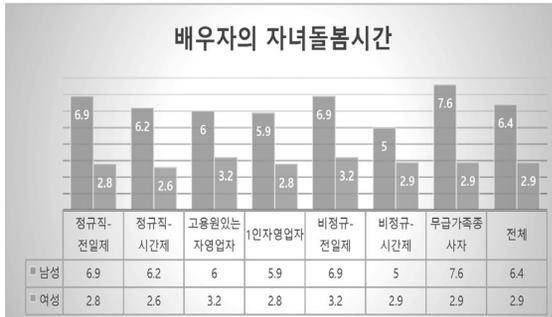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돌봄시간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배우자,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추정 - 고용형태 2 (근로시간형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21

분석결과

'남성'의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시간 선형회귀분석 결과 - 고용형태 3 (종사상지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실제자녀돌봄시간 (b)		희망자녀돌봄시간 (b)		희망-실제자녀돌봄시간 (b)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본인-배우자) (b)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614**	0.656**	0.660**	0.733**	0.0461	0.0771	-0.262	-0.254	0.349	0.402	0.873*	0.909*
1인자영업자	0.778***	0.705***	0.294	0.271	-0.484*	-0.434*	-1.006**	-0.679*	-0.312	0.0265	1.700***	1.384***
비정규-상용직	0.489	0.421	0.333	0.291	-0.156	-0.129	-0.794	-0.366	-0.289	0.0543	1.299*	0.787
비정규-임시일용직	0.684*	0.727**	0.653*	0.719*	-0.0314	-0.00826	-0.348	-0.0291	0.300	0.698	0.997	0.757
무급가족종사자	0.259	0.269	0.601	0.587	0.341	0.318	0.00424	0.672	0.263	0.941	0.255	-0.403
35-40세미만	-0.428	-0.355	-0.147	-0.0874	0.281	0.268	1.460**	1.231*	1.008	0.876	-1.912**	-1.586**
40-45세미만	-1.009**	-0.768*	-0.560	-0.374	0.449	0.394	1.715**	1.158*	0.702	0.389	-2.729***	-1.926**
45세이상	-1.408***	-1.063*	-1.256**	-1.011*	0.152	0.0520	1.770**	1.338*	0.341	0.275	-3.198***	-2.400**
전문대졸	-0.292	-0.389	-0.113	-0.216	0.179	0.173	0.187	0.0864	-0.180	-0.303	-0.553	-0.476
대졸	-0.391	-0.477	0.0605	-0.0329	0.451	0.444	0.457	0.371	0.00846	-0.105	-0.905	-0.848*
대학원이상	-0.209	-0.373	0.0741	-0.00869	0.283	0.364	-0.0305	-0.245	-0.379	-0.618	-0.318	-0.127
300~400만원미만	-0.226	-0.167	-0.479	-0.528	-0.254	-0.361	-0.339	-0.110	-0.565	-0.277	0.112	-0.0562
400~500만원미만	-0.158	-0.224	-0.492	-0.518	-0.335	-0.295	-0.969	-0.172	-1.210	-0.396	0.727	-0.0519
500~600만원미만	-0.546	-0.566	-0.707*	-0.716	-0.161	-0.150	-1.371**	-0.332	-1.945**	-0.898	0.796	-0.234
600~700만원미만	-0.396	-0.383	-0.569	-0.606	-0.173	-0.223	-2.042***	-0.206	-2.421***	-0.589	1.663*	-0.177
700만원이상	-0.346	-0.304	-0.515	-0.512	-0.169	-0.208	-2.559***	-0.640	-2.858***	-0.944	2.260***	0.336
맞벌이		0.266		0.149		-0.117		-3.079***		-2.812***		3.345***
막내자녀연령(연속변수)		-0.106**		-0.0868*		0.0194		-0.110*		-0.216**		0.00392
8세이하자녀수(연속변수)		-0.0315		0.0386		0.0701		0.410*		0.378		-0.442*
부부와자녀돌봄자 있음		-0.00644		0.146		0.153		-1.188***		-1.194***		1.182***
Constant	3.893***	4.171***	4.727***	4.869***	0.834	0.698	6.302***	7.549***	10.29***	11.72***	-2.316**	-3.378***
Observations	837	812	837	812	837	812	812	812	812	812	812	812
R-squared	0.076	0.092	0.048	0.063	0.022	0.025	0.077	0.293	0.054	0.206	0.102	0.291

주: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각각 정규직, 35세미만, 고졸이하, 300만원미만, 외벌이, 부부와 성인자녀돌봄자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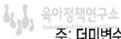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분석결과

‘여성’의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시간 선형회귀분석 결과 - 고용형태 3 (종사상지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돌봄시간

	실제자녀돌봄시간 (b)		희망자녀돌봄시간 (b)		희망-실제자녀돌봄시간 (b)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본인-배우자) (b)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419	0.492	0.599	0.748*	0.180	0.256	0.305	0.247	0.792	0.739	0.182	0.245
1인자영업자	1.420***	1.409***	0.274	0.236	-1.146***	-1.174***	-0.109	-0.205	1.248**	1.204**	1.466***	1.615***
비정규-상용직	0.986***	0.976**	0.355	0.273	-0.631*	-0.703*	0.184	0.288	1.178*	1.264**	0.810*	0.687
비정규-임시일용직	1.571***	1.509***	0.236	0.262	-1.335***	-1.246***	-0.0956	0.0284	1.443**	1.537***	1.634***	1.480***
무급가족종사자	2.450***	2.589***	2.092***	2.120***	-0.359	-0.469	-0.214	-0.337	2.350***	2.251***	2.777***	2.926***
35-40세미만	-0.234	-0.108	-0.578*	-0.568*	-0.344	-0.460	-0.236	-0.151	-0.445	-0.259	0.0280	0.0425
40-45세미만	-0.274	-0.0259	-0.569*	-0.619*	-0.295	-0.594	-0.355	-0.184	-0.594	-0.210	0.116	0.158
45세이상	-0.782	-0.222	-0.919*	-0.951*	-0.137	-0.729	-0.174	0.0345	-0.725	-0.188	-0.377	-0.257
전문대졸	0.232	0.260	0.226	0.427	-0.00675	0.166	-0.738	-0.649	-0.385	-0.388	1.090*	0.909
대졸	0.235	0.222	0.202	0.392	-0.0333	0.170	-0.520	-0.437	-0.194	-0.215	0.846	0.659
대학원이상	0.351	0.264	0.233	0.364	-0.118	0.101	-0.981*	-0.995*	-0.574	-0.731	1.388*	1.259*
300-400만원미만	0.294	0.0388	0.701	0.701	0.406	0.662	-0.651	-0.509	-0.501	-0.470	0.801	0.548
400-500만원미만	0.234	-0.124	-0.0171	-0.0555	-0.251	0.0685	-1.405**	-1.089*	-1.328*	-1.213	1.482*	0.965
500-600만원미만	-0.181	-0.565	0.426	0.380	0.607	0.945	-0.937	-0.652	-1.315*	-1.217*	0.559	0.0867
600-700만원미만	-0.606	-0.934*	-0.310	-0.270	0.295	0.663	-1.636***	-1.274**	-2.410***	-2.208***	0.863	0.341
700만원이상	-0.405	-0.774	-0.0281	-0.0477	0.377	0.726	-1.191*	-0.800	-1.762**	-1.574*	0.620	0.0265
맞벌이		1.355***		0.487		-0.869**		-1.539***		-0.183		2.894***
막내자녀연령(연속변수)		-0.0877		0.00325		0.0909		-0.166**		-0.254**		0.0786
8세이하자녀수(연속변수)		0.0748		-0.276		-0.351		-0.690***		-0.615*		0.765**
부부외자녀돌봄자 있음		-0.331		-0.0518		0.280		0.00515		-0.326		-0.337
Constant	4.947***	4.375***	5.673***	5.512***	0.727	1.137	4.720***	7.358***	9.745***	11.73***	0.304	-2.983**
Observations	800	765	800	765	800	765	765	765	765	765	765	765
R-squared	0.096	0.124	0.077	0.083	0.055	0.079	0.048	0.118	0.079	0.097	0.074	0.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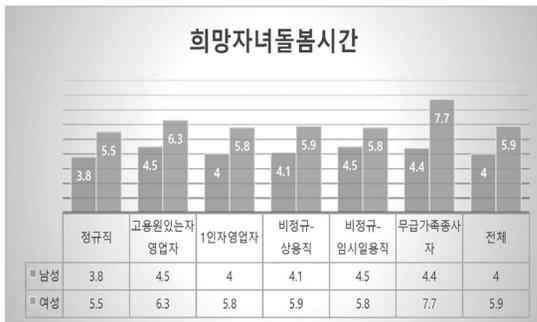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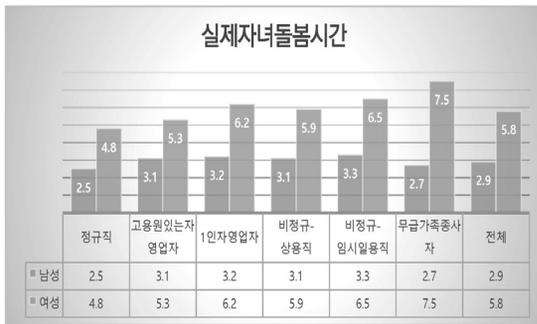
주: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각각 정규직, 35세미만, 고졸이하, 300만원미만, (여성) 외벌이, 부부의 성인지녀돌봄자 없는 경우임.

*** p<0.001, ** p<0.01, * p<0.05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실제, 희망 자녀돌봄시간 추정 - 고용형태 3 (종사상지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돌봄시간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배우자,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추정 - 고용형태 3 (종사상지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25

분석결과

'남성'의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시간 선형회귀분석 결과 - 고용형태 4 (비정형노동)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실제자녀돌봄시간 (b)	희망자녀돌봄시간 (b)	희망-실제자녀돌봄시간 (b)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본인-배우자) (b)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626**	0.671**	0.671**	0.746**	0.0458	0.0747
1인자영업자-전형	0.426	0.482	0.324	0.291	-0.102	-0.191
비정규-전형	0.319	0.368	0.424	0.512	0.105	-0.111
특수고용형태	1.287***	1.158***	0.728**	0.643**	-0.559*	-0.144
플랫폼	0.467	0.184	-0.451	-0.466	-0.916*	-0.650*
프리랜서	0.553	0.477	0.105	0.135	-0.448	-0.342
무급가족종사자	0.245	0.257	0.594	0.583	0.349	0.326
35-40세미만	-0.458	-0.386	-0.171	-0.124	0.287	1.459**
40-45세미만	-1.019**	-0.797*	-0.590	-0.427	0.429	0.370
45세이상	-1.444***	-1.122*	-1.309***	-1.101**	0.135	0.0218
전문대졸	-0.220	-0.332	-0.129	-0.238	0.0912	0.0943
대졸	-0.326	-0.428	0.0507	-0.0490	0.376	0.379
대학원이상	-0.192	-0.368	0.0651	-0.0315	0.257	0.336
300-400만원미만	-0.286	-0.220	-0.496	-0.546	-0.210	-0.326
400-500만원미만	-0.191	-0.262	-0.504	-0.545	-0.314	-0.283
500-600만원미만	-0.603	-0.618	-0.730*	-0.743	-0.127	-0.125
600-700만원미만	-0.446	-0.430	-0.602	-0.640	-0.156	-0.210
700만원이상	-0.416	-0.367	-0.573	-0.567	-0.157	-0.200
맞벌이	0.245	0.245	0.135	0.135	-0.110	-0.110
막내자녀연령(연속변수)	-0.101**		-0.0790*		0.0224	-0.103
8세이하자녀수(연속변수)	-0.0199		0.0426		0.0625	0.405*
부부외자녀돌봄자 있음		-0.0236		0.124		0.148
Constant	3.905***	4.185***	4.788***	4.937***	0.883*	0.752
Observations	837	812	837	812	837	812
R-squared	0.091	0.103	0.055	0.068	0.028	0.028

주: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각각 정규직, 35세미만, 고졸이하, 300만원미만, 외벌이, 부부의 성인자녀돌봄자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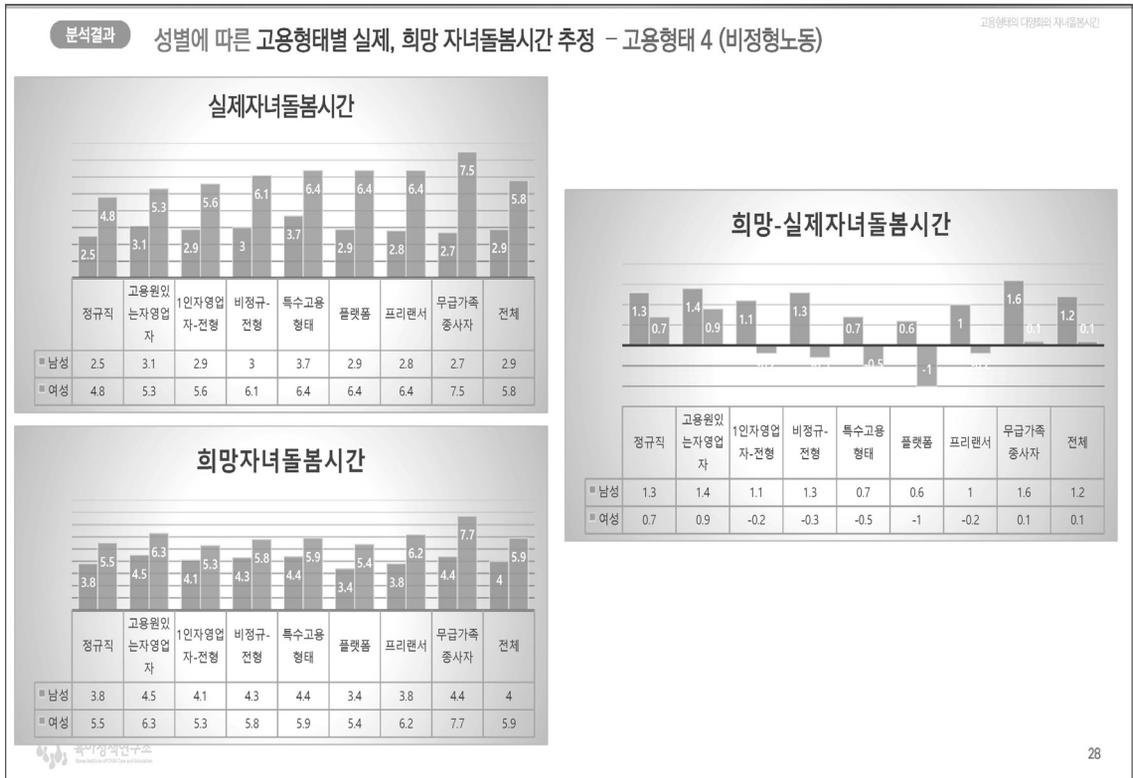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돌봄시간

분석결과 '여성'의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시간 선형회귀분석 결과 - 고용형태 4 (비정형노동)

	실제자녀돌봄시간 (b)		희망자녀돌봄시간 (b)		희망-실제자녀돌봄시간 (b)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b)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 (본인-배우자) (b)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418	0.490	0.605	0.751*	0.187	0.261	0.308	0.252	0.795	0.743	0.179	0.238
1인자영업자-전형	0.830	0.956	0.0556	0.0440	-0.775	-0.912*	-0.334	-0.560	0.411	0.397	1.079	1.516*
비정규-전형	1.268***	1.155***	0.248	0.183	-1.020**	-0.972**	0.182	0.357	1.382**	1.512**	1.019**	0.798*
특수고용형태	1.382***	1.446***	0.242	0.298	-1.140***	-1.148***	-0.0308	0.0488	1.438**	1.494***	1.499***	1.397***
플랫폼	1.527*	1.481*	-0.0480	-0.188	-1.575**	-1.669**	-0.225	-0.373	1.206	1.108	1.656	1.854*
프리랜서	1.641***	1.500***	0.776*	0.675	-0.866	-0.825	-0.0392	-0.0296	1.478*	1.470*	1.556**	1.530**
무급가족종사자	2.444***	2.576***	2.091***	2.119***	-0.353	-0.457	-0.205	-0.329	2.353***	2.247***	2.762***	2.905***
35-40세미만	-0.195	-0.0756	-0.568*	-0.554*	-0.373	-0.479	-0.245	-0.150	-0.416	-0.226	0.0736	0.0745
40-45세미만	-0.249	-0.0128	-0.552*	-0.608*	-0.303	-0.595	-0.347	-0.157	-0.565	-0.170	0.129	0.144
45세이상	-0.751	-0.200	-0.949*	-0.994*	-0.198	-0.794	-0.203	0.00702	-0.739	-0.193	-0.334	-0.207
전문대졸	0.169	0.209	0.228	0.419	0.0589	0.210	-0.736	-0.659	-0.451	-0.450	1.021*	0.867
대졸	0.173	0.165	0.178	0.364	0.00438	0.199	-0.510	-0.423	-0.255	-0.259	0.766	0.588
대학원이상	0.217	0.147	0.154	0.278	-0.0629	0.131	-0.973*	-0.990*	-0.710	-0.843	1.236*	1.137
300-400만원미만	0.297	0.0214	0.715	0.691	0.419	0.670	-0.657	-0.530	-0.537	-0.508	0.777	0.551
400-500만원미만	0.228	-0.142	0.0126	-0.0418	-0.216	0.0999	-1.368**	-1.031*	-1.309*	-1.172	1.428*	0.889
500-600만원미만	-0.182	-0.580	0.448	0.383	0.630	0.963*	-0.914	-0.619	-1.310*	-1.199	0.518	0.0386
600-700만원미만	-0.607	-0.945*	-0.288	-0.268	0.319	0.677	-1.617***	-1.258**	-2.406***	-2.203***	0.827	0.312
700만원이상	-0.390	-0.766	-0.0162	-0.0529	0.374	0.713	-1.178*	-0.791	-1.751**	-1.557*	0.605	0.0242
맞벌이		1.315***		0.470		-0.845**		-1.596***		-0.281		2.912***
막내자녀연령(연속변수)		-0.0857		0.00406		0.0898		-0.171**		-0.256**		0.0850
8세이하자녀수(연속변수)		0.0904		-0.281		-0.372		-0.673***		-0.582*		0.763**
부부외자녀돌봄자 있음		-0.335		-0.0436		0.291		0.0381		-0.297		-0.373
Constant	4.980***	4.427***	5.665***	5.542***	0.684	1.116	4.697***	7.354***	9.781***	11.78***	0.386	-2.928**
Observations	800	765	800	765	800	765	765	765	765	765	765	765
R-squared	0.095	0.123	0.081	0.087	0.053	0.079	0.049	0.121	0.082	0.100	0.072	0.150

주: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각각 정규직, 35세미만, 고졸이하, 300만원미만, (여성) 외벌이, 부부의 성인지녀돌봄자 없는 경우임. *** p<0.001, ** p<0.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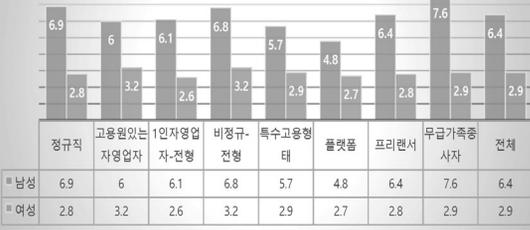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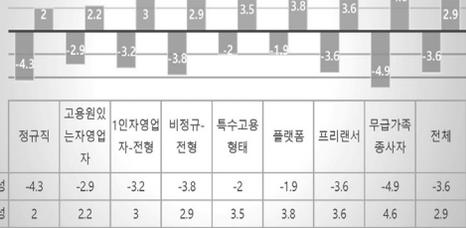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배우자,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추정 - 고용형태 4 (비정형노동)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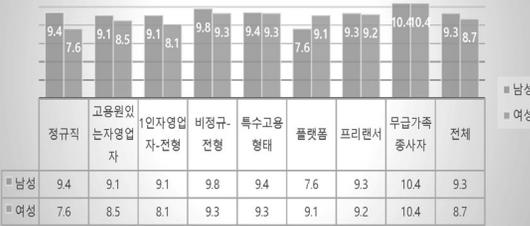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차이(본인-배우자)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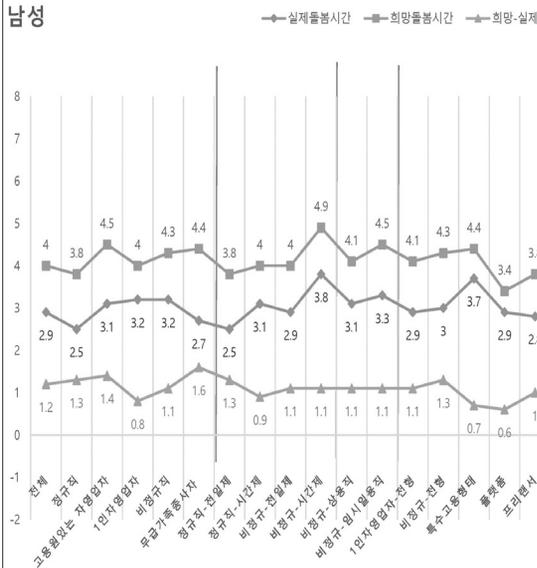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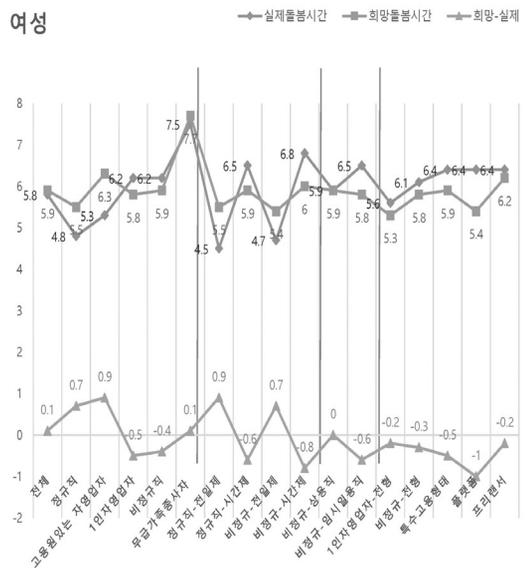
분석결과 종합 및 요약 -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실제, 희망자녀돌봄시간 추정값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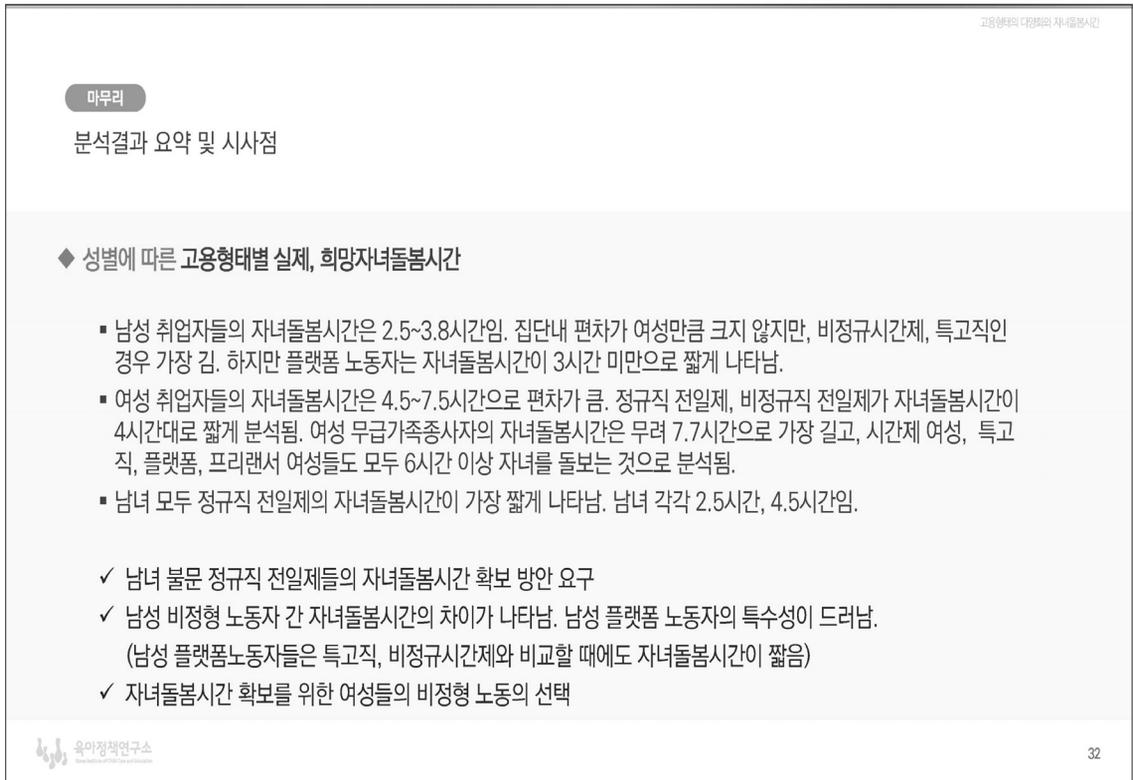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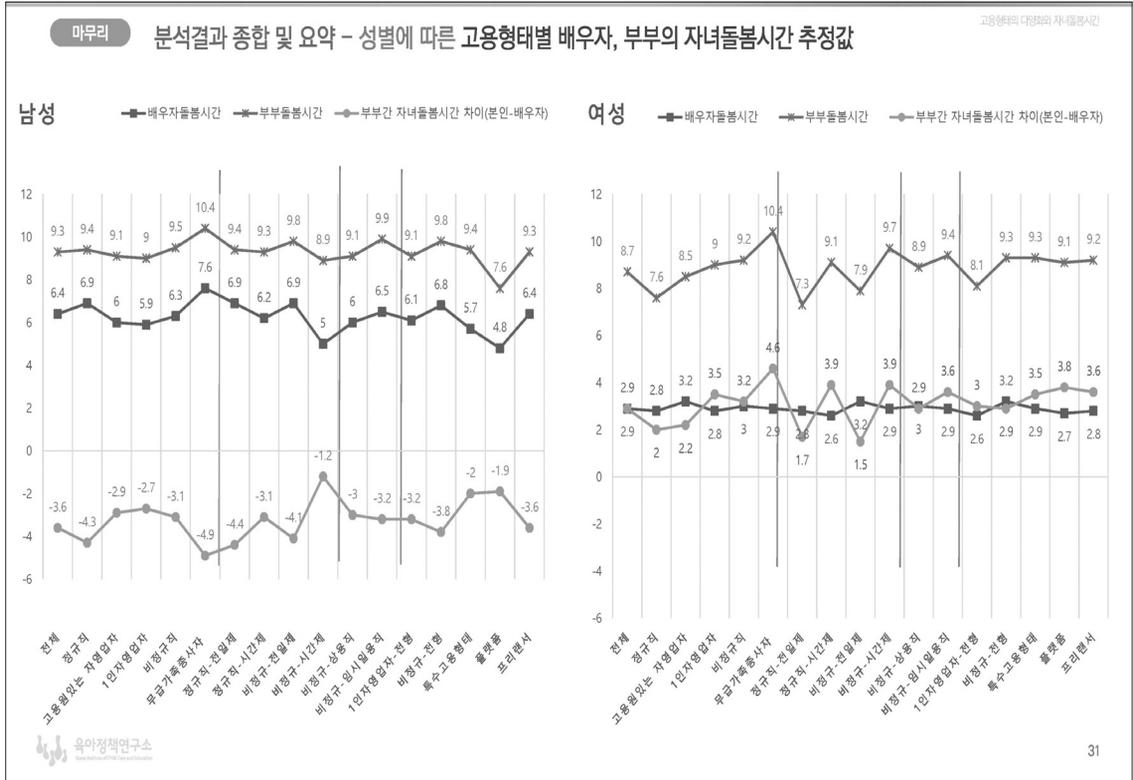
남성



여성



육아정책연구소



마무리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실제, 희망자녀돌봄시간

- 남성의 희망자녀돌봄시간은 실제자녀돌봄시간보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길게 나타남. 남성의 희망자녀돌봄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은 플랫폼노동자들로 3.4시간이며, 남성 정규직 전일제는 3.8시간, 남성 프리랜서 3.8시간으로 나타남.
 - 여성 취업자들의 희망자녀돌봄시간을 살펴보면 실제자녀돌봄시간보다 긴 집단은 전일제,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희망자녀돌봄시간이 실제돌봄시간보다 짧게 나타남. 그 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여성 플랫폼노동자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됨.
- ✓ 남성 취업자들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자녀돌봄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 반면, 여성 취업자들은 전일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자녀돌봄시간을 줄이고 싶어함.
 - ✓ 플랫폼 노동자들은 남녀 모두 자녀돌봄시간을 짧게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임. ←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성

마무리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배우자,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 남성 취업자들의 경우 본인이 플랫폼노동자일때 부부합산 자녀돌봄시간이 두드러지게 짧음(7.6시간)
 - 여성 취업자들의 경우는 본인이 정규직 전일제일 때 부부합산 자녀돌봄시간이 가장 짧음(7.3시간). 그 다음으로는 고용원있는 자영업자(7.6시간), 비정규전일제(7.9시간), 전형적인 1인자영업자(8.1시간)도 짧게 나타남.
 - 남성 취업자들의 경우 배우자와의 자녀돌봄시간 차이가 가장 적은 집단은 비정규시간제, 플랫폼노동자, 특고직 순으로 나타남. 이때 남성이 플랫폼노동자일 때 이들의 여성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은 4.8시간으로 가장 짧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자녀돌봄시간 차이가 가장 적은 집단은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때임. 차이가 큰 집단은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 일 때임. 또한, 여성이 시간제로 일할 때 그리고 플랫폼, 특고직, 프리랜서일 때 배우자와의 자녀돌봄시간 차가 크게 나타남.
- ✓ 자녀돌봄시간 확보에 있어서의 남성 플랫폼노동자 가구의 열악성 ←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성
 - ✓ 여성 취업자 집단 간의 높은 이질성
(정규직전일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전형적) < 시간제, 플랫폼, 특고직, 프리랜서)

마무리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기타 육아,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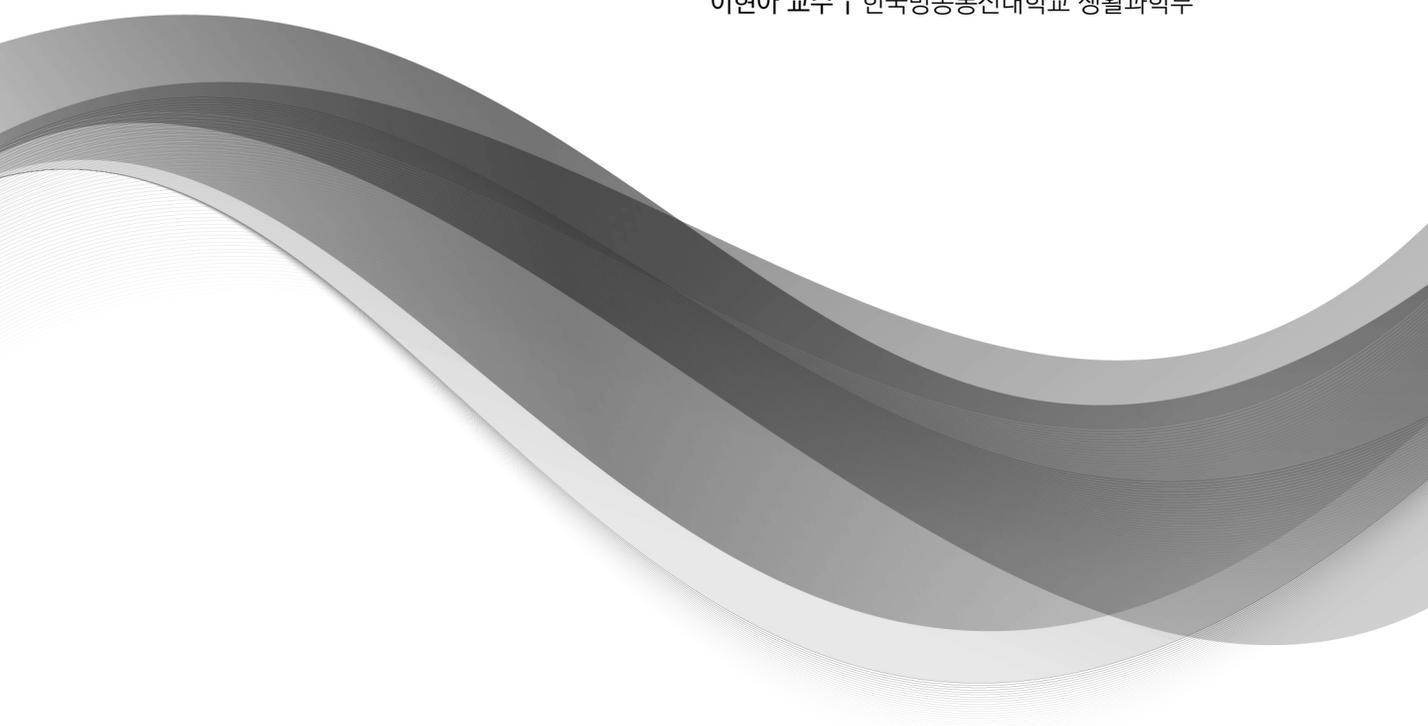
- 남성 취업자 분석 결과, 맞벌이일 때 여성배우자들의 자녀돌봄시간과 부부의 자녀돌봄시간이 적게 나타남.
 -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남성들의 실제자녀돌봄시간과 희망자녀돌봄시간 그리고 부부의 자녀돌봄시간은 적어짐. 8세 이하 자녀가 더 있으면 여성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은 증가
 - 부부와 자녀돌봄자가 있는 경우 남성 본인의 돌봄시간은 별 영향이 없으나(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 부부의 자녀돌봄시간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취업자를 분석했을 때, 부부와 자녀돌봄자의 유무가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이나 이들 남성배우자들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부부와 성인자녀돌봄자의 영향에 대한 차이가 나타남 → 남녀의 성인자녀돌봄자에 대한 인식차이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2

아빠 육아달인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사례

이현아 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정책세미나 (2023.11.7.)

아빠 육아달인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사례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1

❖ 아빠육아달인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연구 개요

- 과업기간: 2023.3. ~ 2023.8. (6개월)
- 수행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 이현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 연구진 : 이운경(이화여대) 전은다(고려사이버대) 김유경(숭의여대) 김주희(방송대) 이은정(이화여대)
- 과업목적
 -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의 돌봄 기술 습득 지원 및 자녀와의 긍정적 교류를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
 - 신뢰도 높은 가족 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남성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확산
- 과업내용
 -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현황 분석
 -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참여자용 교육 자료 매뉴얼 개발 및 현장 전문가용 운영 매뉴얼 개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아버지역할이 '일중심'에서 '일가정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현아 외, 2017; 이현아, 2020). 특히 젊은 세대 남성인 Y세대 아버지는 부부가 동반자적 의식을 가지고 가사와 육아에 대한 요구가 있고 가능한 시간이 있으면 참여하는 특징을 보임(이현아, 김주희, 2021)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통계(2023)'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2016년 8.5% → 2022년 28.9%). 어린 자녀를 둔 남성들의 양육 참여가 늘어나면서 자녀와 소통하고 놀아주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버지들도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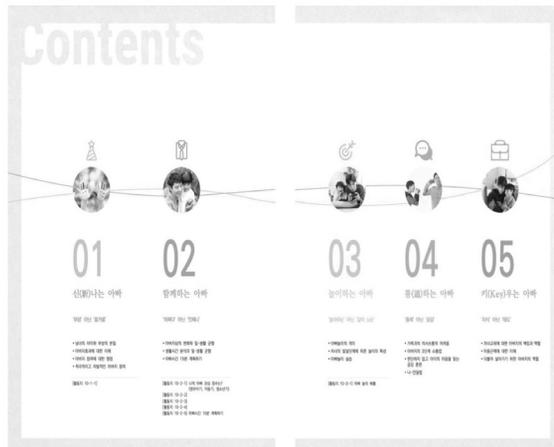
일중심



일가정균형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매뉴얼 중 아버지 프로그램은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녀연령에 따른 아버지역할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연령대별 세분화된 아버지교육프로그램 매뉴얼이 필요함.
- 2017년 개발된 부모교육 매뉴얼 중 10권: 아버지
 - ✓ 5가지 주제로 구성: 신나는 아빠, 함께하는 아빠, 놀이하는 아빠, 통하는 아빠, 키우는 아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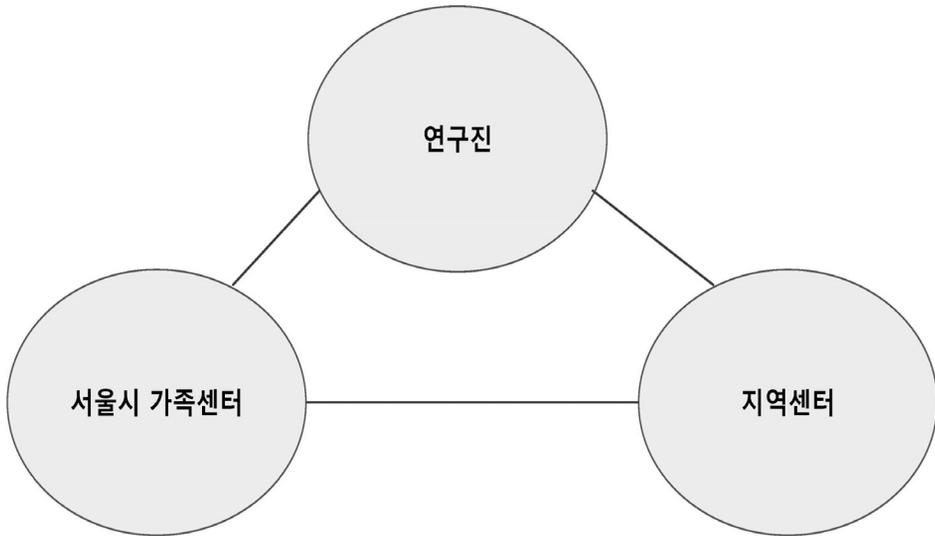
- 유아기는 의사소통능력과 인지능력, 운동능력이 급속히 증진되며,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임.
 - 아버지양육참여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한 결과, 양육 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자녀와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양육관련 전문가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특히, 자녀와 애착 증진과 자녀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김용훈, 이경숙, 202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 기술 습득 지원 및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 특히,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법을 익히고, 부부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놀이를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놀이 사례를 함께 개발하여 아버지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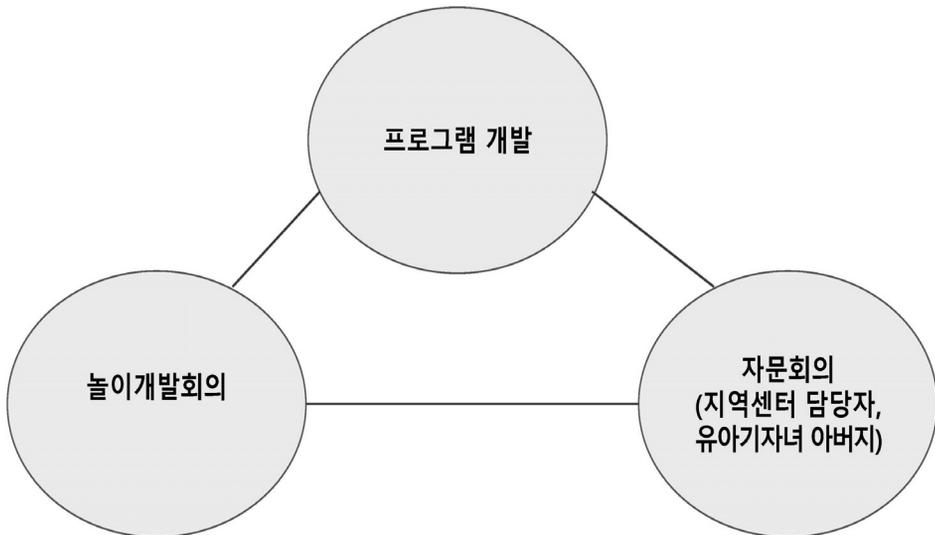
2. 연구내용 및 범위

- 유아기 발달과 아버지 역할 문헌 고찰
 - 유아기 발달 특성
 - 유아기 놀이와 부모 역할
 - 유아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연구 고찰
 - 국내 프로그램 관련 선행 연구
 - 국외 프로그램 관련 선행 연구
-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현황 분석
 - 가족센터 프로그램 현황 분석
 - 유관기관 프로그램 현황 분석
-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참여자용 교육자료 개발
 - 현장 전문가용 매뉴얼 개발

3. 연구추진 전략



3. 연구추진 전략



4.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1회기: 유아기 우리 아이, 그리고 부모역할

2회기: 아이 말을 잘 듣고, 잘 말하는 아빠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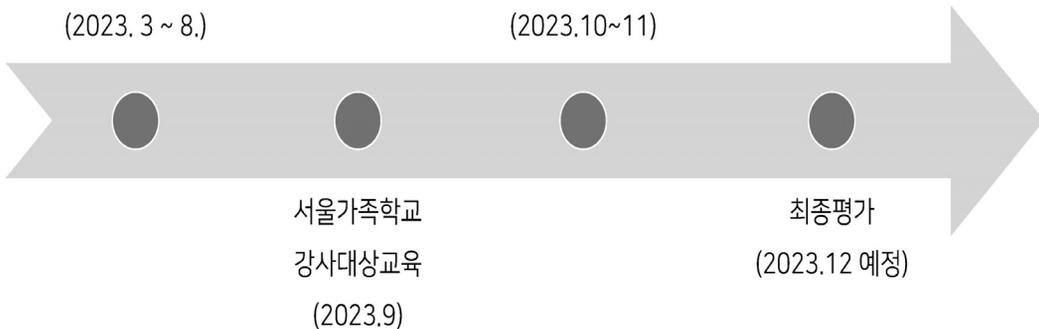
3회기: 함께하는 육아, 행복한 아빠 엄마

활동내용	1회기	2회기	3회기
주제	유아기 우리 아이, 그리고 부모역할	아이 말을 잘 듣고, 잘 말하는 아빠 되기	함께 하는 육아, 행복한 아빠 엄마
1. 도입	교육자, 참가자 소개 및 프로그램 소개	이전 회기 적용 경험담 나누기 및 회기 안내	이전 회기 적용 경험담 나누기 및 회기 안내
2. 전개	양육효능감 필요성 이해 유아기 발달 특성 유아기의 바람직한 부모역할	자녀 행동 수용성 수준 파악 문제의 소유자 파악하기 듣기(반영적 경청) /말하기(나-전달법)	자신을 보살피기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효과적인 맞돌봄 방법
3. 적용	발달특성에 적합한 놀이 방법 소개 및 실습	의사소통방법을 적용한 놀이 방법 소개 및 실습	함께하는 양육을 증진시키는 놀이 방법 소개 및 실습
4. 마무리	요약, 적용방법 안내	요약, 적용방법 안내	요약, 적용방법 안내, 상장수여 및 자조 집단 결성 안내

5. 강사양성 및 시범사업 등 추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23. 3 ~ 8.)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시범사업 12개소
(2023.10~11)



❖ “아빠육아 달인 프로젝트” 시범 적용 사례

연합뉴스
서울시가족센터, '아빠육아 달인 프로젝트' 시범운영
 8.24(목) 2023-10-18 06:00

| 12개 가족센터서 시범사업-내년 한 차지구로 확대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시범사업
 [서울시가족센터 제공] (가상 이미지)



https://www.youtube.com/watch?v=EuJ_wZKG-60&t=7s

헤럴드경제
서울시가족센터,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12개 자치구서 시범운영
 2023-10-18 10:40

서울시가족센터 @familyseed 구독자 23만 명 동영상 70개
 서울시가족센터는 가족상담, 가족교육, 문화, 육재 등 서울가족을 위한 다량. >

동영상 ▶ 모두 재생

헤럴드경제-김수현 기자 | 서울시가족센터는 영대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0~9세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를 위한 '아빠육아 달인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관에서 생활하는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12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10~11월 두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후 참여자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은 마감됐고 내년 참가자는 2월에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가족센터는 강남·강동·강북·강서·동대문·마포·서초·영등포·송파·중랑 등이다.

아빠육아 달인 프로젝트는 남성 양육자와 0~9세 자녀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된 놀이 매개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녀발달 이해, 의사소통, 맞벌이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서울시가족센터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합리적 형태의 '아빠육아달인 놀이도구'를 개발·배포한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이 놀이도구 500개를 무료 배부하자 2주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주환 서울시 가족다문화과장은 "아빠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한 서울시가족센터의 '아빠육아 달인 프로젝트'가 조속 아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김용익, 김낙홍, 방효국(202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1년부터 2020년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7(3), 77-99.

김용훈, 이경숙(2022).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련 인식 및 요구도 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5(2), 73-100.

서울시가족센터(2022). 2022 서울가족보고서.

여성가족부(2017). 부모교육매뉴얼 제10권 아버지. 육아정책연구소.

이현아(201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61-76.

이현아(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143-175.

이현아, 김주희(202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71-86.

이현아, 박철, 김שמיה(2017).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19-349.

인구보건복지협의회. (2019). 저출산 인식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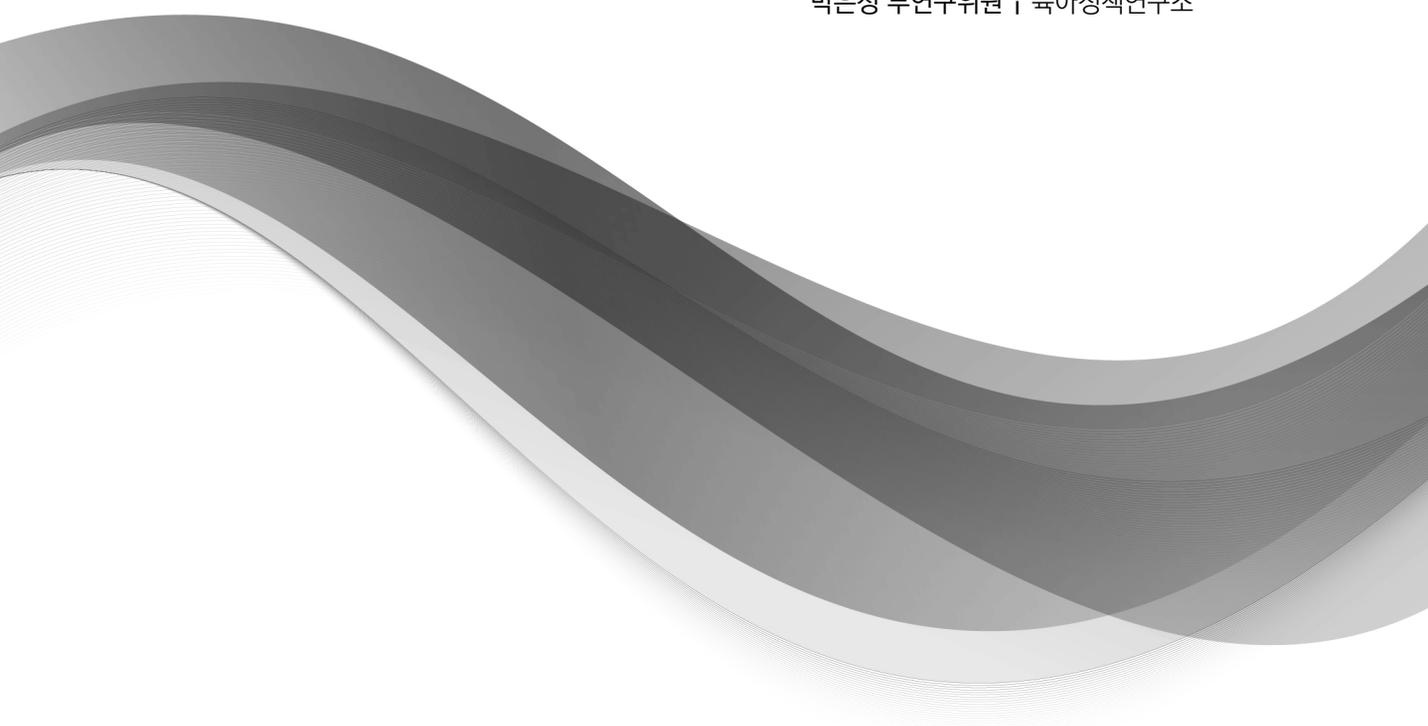
연합뉴스(2023.10.18일자) 서울시가족센터, 아빠육아 달인 프로젝트 시범운영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715650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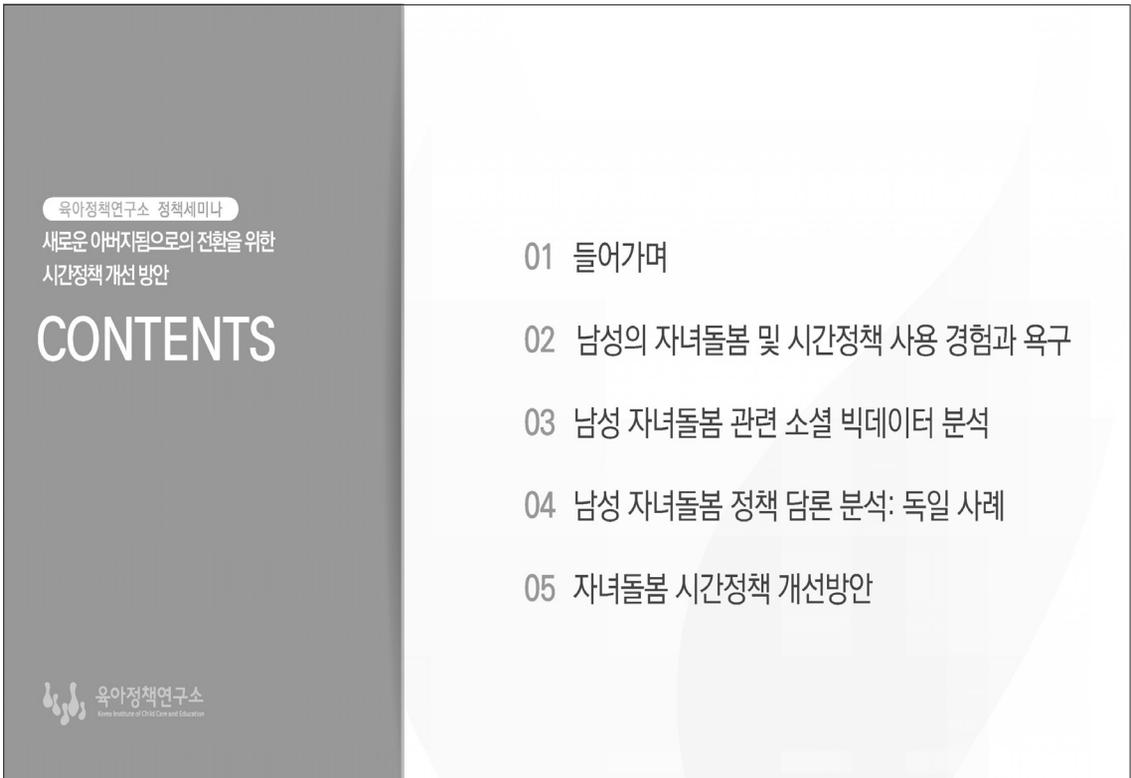
헤럴드경제(2023.10.18일자) 서울시가족센터,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12개 자치구서 시범운영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018000273>

주제발표 3

‘돌봄자’, 새로운 아버지됨으로의 전환과 시간정책

박은정 부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1. 들어가며



연구의 기본 관점: 동등한 돌봄권을 가진 돌봄의 주체로서 남성

주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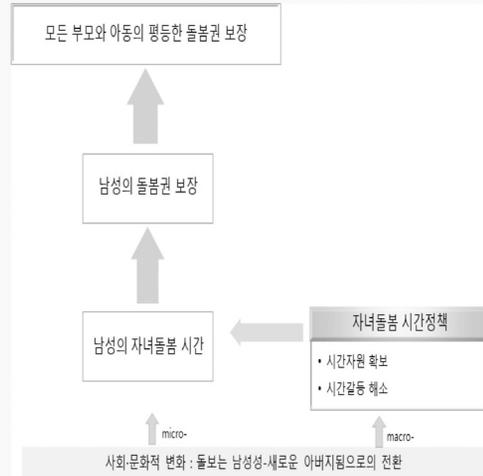
- 모든 양육자의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돌봄권 보장
⇒ 결국 보편적인 아동의 돌봄권 보장으로 연결
 - 1차년도(2022년):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
 - 2차년도(2023년): 남성의 돌봄권 보장
- 여성을 주양육자로 상정하고 남성을 돌봄에 참여하는 보조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남성을 동등한 돌봄권을 가진 돌봄의 주체로 보는 관점을 전제
 - 부모의 돌봄 권리는 돌봄의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
 - 남성 역시 자녀를 돌봄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돌봄에 대한 책임과 육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도 가짐.

- 돌봄권: “인간의 본질적인 의존성에서 파생된 돌봄의 보편성에 근거한 권리이며, 사회적인 돌봄 책임 실현을 통해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성격을 지닌 권리로 정의(박은정 외, 2022:69)”
 - 부모가 돌봄 권리와 아동이 돌봄을 받을 권리를 모두 포괄하며, 직접 돌봄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도 포함
- 이 연구에서 남성의 돌봄권: 남성이 자녀를 돌보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
 - 돌보는 남성성은 새로운 역할규범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수용하는 남성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아버지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하는 남성성

1. 들어가며

연구의 개념틀 및 목적 : '돌보는 남성성' & '새로운 아버지됨'

- 돌봄의 가치가 수용되면서 돌보는 남성성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됨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욕구이자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확대
 - 본 연구는 돌보는 남성성의 가치가 반영된 자녀돌봄 시간정책이 남성 개인의 삶에서 자녀돌봄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
-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서 돌보는 남성성의 전환이 자녀돌봄 시간정책에 잘 안착되고, 이를 통해 남성의 자녀돌봄시간이 확장되어 남성의 돌봄권 보장
 - 남성이 아버지로서 적극적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 시간정책 강화 필요
- 육아휴직제도 내 남성 인센티브 제도화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2020년대 들어서는 남성의 자녀돌봄과 돌봄권 보장이 정책에 명시되기 시작하였으나, 남성의 실질적인 시간지원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림] 연구의 개념틀



2. 남성의 자녀돌봄 및 시간정책 사용 경험과 욕구

FGI 면담 구분 및 대상자

- 아버지 대상 FGI와 기업 대상 FGI로 구분하여 실시
- 아버지 대상 FGI 면담 대상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31명, 총 7개 집단
 - 2019년 이후 육아휴직 사용 남성
 - (회사사정으로 강제 사용된 경우는 제외) 자발적 육아휴직 사용자
 - 각 집단별로 1명 이상의 외별이 남성 포함
- 기업 대상 FGI 면담 대상자: 집단 당 3개 기업 5개 집단
 - 대기업은 인사·노무 담당자, 중소기업은 대표/고위·중간 관리자

<표 1> 아버지 대상 FGI 집단 구성

육아휴직제도						
사용					미사용	
사무직 근로자	생산직/기타 근로자	이직/퇴사 경험 근로자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집단7

<표 2> 기업 대상 FGI 집단 구성

남성 자녀돌봄 시간 지원					
대기업	우수 기업			저조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2. 남성의 자녀돌봄 및 시간정책 사용 경험과 욕구

분석결과: 남성의 자녀돌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범주	범주	하위 범주
돌보는 아버지상과 전통적 아버지상의 병존	생계부양자 아버지와 돌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돌봄 책임 수용	
아버지의 활동적 자녀돌봄 경험 및 욕구	아버지가 주로 자녀의 신체적 활동/아외활동 담당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접근성
	활동적 자녀돌봄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대한 욕구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적 프로그램 지원 희망
		아버지-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확대 요구
아버지의 자녀돌봄 어려움	신체적 힘듦	
	자녀와의 관계형성 및 정서적 반응에 대한 어려움	
	자녀 훈육의 어려움	
	남성 자녀돌봄에 대한 적은 정보 및 교류	
자녀돌봄 관련 부부 간 파트너십의 다양성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들의 고립감	
	부부가 자녀돌봄의 영역이나 역할 구분	
	부부간 동일한 자녀돌봄 분담을 위한 노력	
자녀돌봄을 둘러싼 부부 간 갈등 경험	배우자가 자녀돌봄 담당(외벌이/늦은 퇴근자)	
	부부 간 양육행식 차이로 인한 갈등	
남성이 느끼는 남성 육아에 대한 상반된 사회적 인식	훈육 및 교육관 차이로 인한 갈등	
	여전히 남성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인식	
	남성 육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회 인식	

- 여전히 '생계부양자 아버지'와 '돌보는 어머니'라는 전통적 아버지상을 가진 남성과 아버지의 자녀돌봄 역할의 책임을 당연시하는 돌보는 아버지상을 가진 남성으로 구분
- 전통적인 아버지상에서 돌보는 아버지상로의 전환은 현재 진행형임
-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스스로 자신이 동적인 돌봄을 담당해야한다고 인식
- 아버지들은 자녀와 신체적 활동이나 야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적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함.
- 아버지의 자녀돌봄 특성을 '활동적 자녀돌봄'으로 명명하고, 면담을 통해 파악된 아버지 자녀돌봄의 특성과 욕구를 제시

2. 돌보는 아버지상과 전통적 아버지상의 병존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남자가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 활동을 안 하고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요. 일을 하기가 싫어졌던 거예요.(면담 7)

일단은 가정 내에서 아버지 역할이 무엇이나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마는 주로 양육 이렇게 생각을 하고.(면담 22)

저는 부부가 같이 공동하게 해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양이 부분이란 건 남성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육아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서로 그걸 아이들이 배우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중략)... 저희 때랑은 좀 아버지 역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면담 26)

일단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세대랑 저희 세대는, 지금은 육아를 해야 진정한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육아와 가사를 잘해야 그게 이제 잘하는 아빠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면담 29)

2. 아버지의 활동적 자녀돌봄 경험 및 욕구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좀 동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기들이 이제 어디를 체험하면서 뭔가 배워가면서 그리고 한글 교육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주로 좀 엄마들이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기들 동적으로 놀았을 때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면담 15)

아버지 역할은 아까 아버님도 얘기하셨듯이 노는 거 일단 노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아이들과의 스킨십과 놀이. 왜냐하면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중략)... 신체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몸으로 하는 놀이를 많이 하는 게 아빠의 역할이죠.(면담 17)

이런 거를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 같은 게 있었으면 거기서 이제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놀이라든가 아빠와 함께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면담 18)

아빠랑 애들이랑 친해지려면 뭔가 스포츠 관련된 걸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스포츠 센터도 딱히 뭔가 없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면담 30)

2. 아버지의 자녀돌봄 어려움

애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 이거를 좀 올바르게 좀 얘기로 풀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모르는 건지 이거를 풀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면담 18)

저도 좀 애가 자기 주장이 너무 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이제 좀 풀려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자기주장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일단 맞춰주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아나다 싶은 거를 이제 중간에서 제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아빠가 못하게 한다고 뭐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맞춰주는 게.(면담 12)

맘카페에는 있지만 아빠 카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좀 네트워크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육아나 이런 분들 물론 엄청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을 비대칭이 되게 심하거든요.(면담 28)

예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시골벽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랑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갈 수 없고 아이와 지만의 12시간, 10시간 이렇게 꼭 이어진단 말이에요...(중략)... 그냥 제 자신이 좀 지치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혼자 풀어야 되고 또 어려운 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없고 아이랑 계속 단톡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면담 1)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 같은 게 있어서 서로 공감도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가끔은 되게 그렇게 외롭다고 할까 그런 것.(면담 3)

2. 남성이 느끼는 남성 육아에 대한 상반된 사회적 인식

아직은 (사회에서) 좀 저 사람 일이 없나, 백수인가 약간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육아휴직할 때 매번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니까 주위에서 볼 때 진짜 능력이 없어가지고, 쉬는거야 뭐 약간 이런식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한테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면담 5)

일단 예전에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육아휴직을 하면 아예 자리를 잃어버린다. 퇴사 수순이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보면 최근 5년 에 좀 약간 많이 급격히 변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저도 썼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도 남성분들이 그런 육아휴직을 쓴 횟수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가 느끼기에는 빠르게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인식이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대한 남자로서의 자리 보전이나 이런 것들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면담 16)

요즘에는 대부분의 아끼는 다 아빠랑 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그게 주말만 아니더라도 평일 오후든 이렇게 항상 그런 시간을 같이 아빠랑 하는 걸 봐서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아빠가 육아, 남성 육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면담 18)

2. 남성의 자녀돌봄 및 시간정책 사용 경험과 욕구

분석결과: 남성의 자녀돌봄 시간정책 관련 경험 및 지원 욕구 분석 범주

범주	하위 범주
육아휴직 사용의 장애물	육아휴직 사용 시 경제적 어려움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의 거부나 권고 사직
	육아휴직 사용 시 주변의 부정적 반응
육아휴직제도 사용 경험 및 욕구	육아휴직 사용이 직업적 경력에 불이익으로 작용
	남성 스스로 돌봄자가 아닌 생계부양자로 인식
육아휴직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일상적 돌봄의 경험으로 인한 아버지 정체성 강화
	육아휴직급여액 향상
	사후지급금 폐지 및 개선 요구
	휴가, 휴직제도의 단기 분할 사용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인식	복직 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및 문화 개선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인센티브 강화
	육아휴직 자동신청 및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식
	남성 이용 제도의 낮은 인지도 및 사용률
재택근무 제도에 대한 상반된 인식	남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상반된 인식
근로시간유연제 사용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	제도 유용성 인정하나 실제 적용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
	제도 사용 남성은 제도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집단 6, 7)의 다수 남성은 육아휴직 이외에 다른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거나 여성만 사용하는 제도로 인식
- 육아휴직 미사용 집단은 근로시간이 길거나 퇴근 시간이 늦어서 자녀돌봄 분담이 어렵다는 진술이 많았음.
- 근로시간유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 적용의 어려움에 대한 진술이 주된 내용이었고, 근로시간유연제를 사용한 경우는 제도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진술이 주를 이룸.

주: 심층면담 분석 결과의 일부임.



2. 남성의 자녀돌봄 및 시간정책 사용 경험과 욕구

분석결과: 기업의 시간지원 제도 적용 경험 및 욕구 분석 범주

범주	하위 범주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영 상 어려움	대체인력 구인난
	육아휴직 사용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수급 어려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도 인력난 경험: 지방 중소기업
유연근로제도 운영 상 어려움	핵심 인력/숙련 근로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대체 어려움
	재정적 부담
	업종 및 업무 특성 상 적용 어려움
(운영 상 어려움 외) 기업의 시간지원 제도 적용의 장애물	직원 간 형평성 문제
	근태 및 출퇴근 교통 문제: 지방 중소기업
	기업 대표 및 고위관리자의 남성 자녀돌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은 제도 인지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정부 지원	남성 근로자의 제도 사용에 대한 비 선호
	기업의 정부 지원에 대한 낮은 체감도와 시행 부담감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대체인력고용 및 비용 지원
	채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동료지원금 지원
	기업 경영진 대상 인식 개선 교육
제도 사용에 있어 성별 분리 인식 개선	
남성의 제도 사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필요	

- 중소기업은 인력 수급 어려움을 기업 운영 기반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
-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구인, 채용, 인건비 지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강력한 지원 필요 강조
- 중소기업은 자녀돌봄 시간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태 관리나 출퇴근 지원 사업 희망
- 기업의 대표와 고위관리자의 인식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 대표의 인식이 기업정책의 방향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2. 남성의 자녀돌봄 및 시간정책 사용 경험과 욕구

🔍 우수 사례: 롯데 기업

-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
 - 롯데 기업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를 2017년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
 - 모든 육아휴직 대상자들은 자녀 생후 36개월까지 최소 육아휴직 1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
- 자녀출산 전 조직 내 사전 소통을 통한 업무 공백 대비
 -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시 되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면서 배우자가 출산을 앞둔 남성 직원이 있을 경우 조직 내에서 미리 소통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비하여 사전 계획
- 기업문화위원회 조직·운영
 - 롯데기업은 기업의 조직 문화와 관련 복리후생 지원 제도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기업문화위원회를 2015년 9월 조직
 -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외에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 기업 정책이 기업문화위원회에서 결정됨.
- 롯데 기업 자체적으로 부모의 출산 지원 및 복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분석 목적

- 남성의 자녀 돌봄 관련 이슈와 사회적 담론의 변화 파악
- 집단별(전반적, 성별) 담론 차이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 남성의 자녀 돌봄 관련 기초/소셜트렌드/심화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방안 도출

분석 대상 기간

- 2013년 5월 1일 ~ 2023년 4월 30일 / 총 10개년
- 3개 기간 비교 분석: 2014~2015년, 2017~2018년, 2021년~2023년 5월

분석 대상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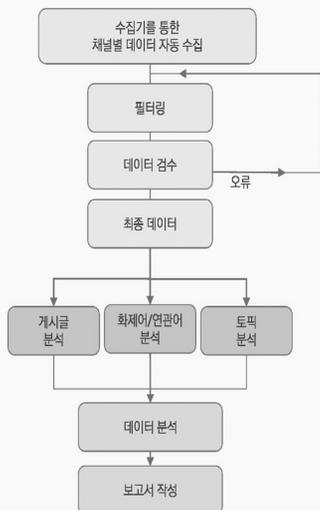
- 1) 미디어: 뉴스 기사
- 2) 소셜
 - 포털: 네이버/다음 카페
 - 커뮤니티: 클리앙, 루리웹, MLB파크, FM코리아, 인벤, 보배드림, SLR 클럽,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등

수집 키워드

- 남성의 자녀 돌봄 및 유관 정책명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 전수 수집

남성 자녀돌봄 관련 주요 수집 키워드	남성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제도 관련 수집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아버지/남성/남자/남편 + 육아/양육 (※ 남편은 여성 집단 분석에서 사용) • 돌보는 아빠/아버지/남성/남자/남편 • 아빠/아버지/남성/남자/남편 + 아이돌보기 • 부부 공동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아버지/남성/남자 + 육아휴직 • 아빠의 달/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 3+3 부모육아휴직 • 배우자 + 출산 + 휴가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아빠/남편 + 재택근무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초분석

- 남성 자녀돌봄 온라인 발현량 추이 분석
- 남성 자녀 돌봄 화제어 및 유사어 분석
- 남성 자녀돌봄 주요 제도별 발현량 분석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로, 근로시간 단축제 등

심화분석: 성별 커뮤니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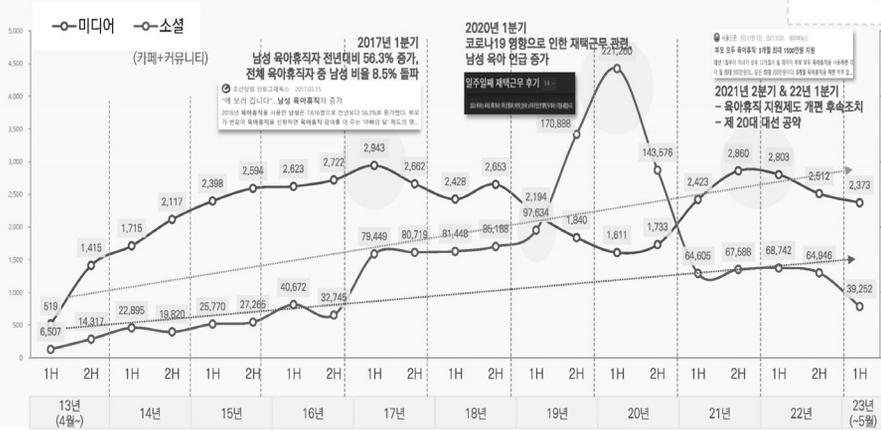
- 남성 커뮤니티 화제어 분석(기간별, 주제별)
- LDA 토픽 모델링 분석(성별, 기간별)
- Gephi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성별, 기간별)
- 기업유형별 분석(블라인드 채널 분석)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남성 자녀돌봄 관련 온라인 문서 발생 현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2,758	46,547	58,027	78,762	165,773	171,717	272,556	368,180	137,476	139,003	41,625

채널별 문서 발생 비중(%)



육아정책연구소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남성 자녀돌봄 관련 미디어 채널 화제어 분석

2014~2015년 화제어 Top30

화제어	2014년	2015년	총합계
1 시간	7,711	8,408	16,119
2 사회	4,115	6,903	11,018
3 지원	4,549	6,216	10,765
4 육아휴직	4,764	5,737	10,501
5 가족	3,982	6,127	10,109
6 출산	4,212	5,653	9,865
7 경제	4,539	5,009	9,548
8 기업	4,347	4,297	8,644
9 부모	2,918	5,236	8,154
10 고용	4,300	2,957	7,257
11 문제	2,612	4,210	6,822
12 제도	3,004	3,508	6,512
13 결혼	2,369	4,106	6,475
14 정부	2,691	3,735	6,426
15 교육	2,830	3,340	6,170
16 자녀	2,419	3,600	6,019
17 정책	2,501	3,108	5,609
18 가정	2,142	3,063	5,205
19 남편	2,278	2,884	5,162
20 직장	2,281	2,745	5,026
21 부부	1,867	2,926	4,793
22 어린이집	1,308	3,045	4,353
23 생활	1,732	2,582	4,314
24 사용	1,949	2,357	4,306
25 회사	1,908	2,227	4,135
26 확대	1,709	2,397	4,106
27 다양	1,786	2,292	4,078
28 참여	1,624	2,449	4,073
29 아들	1,927	2,130	4,057
30 증가	1,932	2,075	4,007

2017~2018년 화제어 Top30

화제어	2017년	2018년	총합계
1 시간	10,678	11,075	21,753
2 출산	8,407	9,492	17,899
3 육아휴직	9,063	7,608	16,671
4 사회	8,094	8,224	16,318
5 지원	7,561	7,536	15,097
6 기업	7,105	5,512	12,617
7 제도	5,929	4,978	10,907
8 정책	6,214	4,502	10,716
9 가족	5,588	5,082	10,670
10 부모	4,983	4,982	9,965
11 문제	5,454	4,444	9,898
12 자녀	4,824	4,844	9,668
13 경제	5,240	4,356	9,596
14 정부	4,710	4,613	9,323
15 결혼	4,278	3,858	8,136
16 고용	4,540	3,341	7,881
17 지원	3,971	3,702	7,673
18 확대	4,341	3,307	7,648
19 근무	3,390	3,692	7,082
20 교육	3,811	3,182	6,993
21 가정	3,447	3,130	6,577
22 휴직	3,595	2,576	6,171
23 직장	3,343	2,779	6,122
24 사용	2,951	3,159	6,110
25 생활	2,771	3,013	5,784
26 임금	3,008	2,699	5,707
27 참여	2,833	2,697	5,530
28 대상	2,718	2,811	5,529
29 회사	2,903	2,616	5,519
30 다양	2,760	2,694	5,454

2021~2023년 화제어 Top30

화제어	2021년	2022년	2023년	총합계
1 지원	6,700	9,372	5,871	23,943
2 출산	6,820	7,004	6,398	20,222
3 시간	7,086	7,515	4,746	19,347
4 사회	7,797	7,458	3,769	19,024
5 가족	7,340	7,456	2,289	17,085
6 육아휴직	6,856	5,955	3,800	16,611
7 정책	5,285	6,242	4,042	15,569
8 부모	5,690	5,963	2,710	14,363
9 문제	4,829	5,242	2,649	12,720
10 기업	4,772	4,778	2,272	11,822
11 자녀	4,718	4,223	2,769	11,710
12 돌봄	3,714	4,770	2,947	11,431
13 제도	4,016	4,301	2,409	10,726
14 정부	3,118	4,421	3,086	10,625
15 청년	4,475	3,789	2,030	10,294
16 고용	4,290	3,068	1,800	9,158
17 코로나	6,148	2,949	-	9,097
18 확대	3,191	3,646	2,155	8,992
19 경제	3,992	3,480	1,386	8,858
20 결혼	3,578	3,177	1,941	8,696
21 가정	3,552	3,301	1,459	8,312
22 교육	3,336	3,440	1,493	8,269
23 인구	2,535	3,660	1,981	8,176
24 대상	2,812	3,204	1,710	7,726
25 다양	3,079	3,076	1,238	7,393
26 서비스	2,624	2,880	1,694	7,198
27 임금	1,907	3,675	1,577	7,159
28 운영	2,501	3,094	1,491	7,086
29 사용	2,770	2,534	1,759	7,063
30 생활	2,837	2,810	1,304	6,951

- 전체 기간 동안, 시간, 출산, 육아휴직, 사회 단어가 화제어 순위에서 높은 순위 차지
- 2021년~2023년 기간에는 '지원'이라는 단어가 화제어 1순위로 나타났는데, 최근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강화로 인해 미디어에서 보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론
-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가 화제어로 2021년~2023년에 부상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 '청년'이란 단어도 새롭게 화제어로 등장

육아정책연구소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채널 화제어 분석

화제어	2014년	2015년	총합계
1 시간	2,823	3,076	5,899
2 결혼	1,757	1,974	3,731
3 부모	1,668	1,793	3,461
4 아들	1,424	1,642	3,066
5 개별	1,350	1,645	2,995
6 둘째	1,214	1,732	2,946
7 맞벌이	1,475	1,428	2,903
8 우울증	1,154	1,103	2,257
9 문제	1,027	931	1,958
10 학년	860	944	1,804
11 출산	724	905	1,629
12 걱정	738	874	1,612
13 친정	667	932	1,599
14 공동육아	649	904	1,553
15 이해	696	852	1,548
16 갈등	732	761	1,493
17 임신	781	689	1,470
18 부부	648	794	1,442
19 전업주부	804	633	1,437
20 분담	864	567	1,431
21 독박육아	-	1,401	1,401
22 시댁	572	738	1,310
23 상황	577	712	1,289
24 직장	644	597	1,241
25 가족	602	634	1,236
26 도움	588	638	1,226
27 고민	582	633	1,215
28 어린이집	447	762	1,209
29 회사	575	602	1,177
30 일요일	338	818	1,156

화제어	2017년	2018년	총합계
1 시간	6,950	7,296	14,246
2 결혼	5,242	4,027	9,269
3 독박육아	4,689	3,739	8,428
4 개별	3,710	3,893	7,603
5 부모	3,688	3,557	7,245
6 둘째	3,386	3,638	7,024
7 아들	3,271	3,316	6,587
8 맞벌이	3,495	2,590	6,085
9 문제	2,558	2,128	4,686
10 학년	2,455	1,848	4,303
11 걱정	1,960	1,970	3,930
12 출산	1,856	2,027	3,883
13 어린이집	1,730	2,012	3,742
14 친정	1,867	1,808	3,675
15 이해	1,886	1,671	3,557
16 셋째	1,535	1,951	3,486
17 회사	1,596	1,816	3,412
18 친구	1,750	1,661	3,411
19 고민	1,557	1,750	3,307
20 상황	1,567	1,730	3,297
21 가족	1,702	1,585	3,287
22 우울증	1,688	1,483	3,171
23 부부	1,654	1,452	3,106
24 임신	1,650	1,422	3,072
25 공동육아	1,834	1,231	3,065
26 도움	1,463	1,451	2,914
27 시댁	1,562	1,328	2,890
28 정보	1,456	1,355	2,811
29 육아휴직	1,363	1,361	2,724
30 직장	1,353	1,363	2,716

화제어	2021년	2022년	2023년	총합계
1 결혼	6,483	6,435	2,960	15,878
2 시간	6,571	6,836	2,407	15,814
3 부모	6,065	6,544	2,571	15,180
4 맞벌이	4,158	4,000	1,533	9,691
5 출산	4,011	3,782	1,861	9,654
6 문제	3,461	3,458	1,415	8,334
7 독박육아	3,743	3,034	1,106	7,883
8 개별	3,402	3,250	1,062	7,714
9 학년	2,380	2,564	1,129	6,073
10 임신	2,262	2,872	749	5,883
11 생활비	2,458	2,693	602	5,753
12 부부	2,274	2,361	887	5,522
13 육아휴직	2,022	2,053	1,377	5,452
14 회사	2,279	1,920	1,206	5,405
15 상황	2,213	2,311	848	5,372
16 아들	2,220	2,223	688	5,131
17 가족	2,008	2,380	716	5,104
18 이해	1,984	2,053	818	4,855
19 공동육아	1,890	2,028	872	4,790
20 갈등	1,953	1,926	612	4,491
21 이혼	1,775	2,185	527	4,487
22 사회	1,845	1,728	912	4,485
23 가정	1,985	1,732	690	4,407
24 둘째	1,846	1,836	570	4,252
25 우울증	1,955	1,603	503	4,061
26 어려움	1,663	1,754	578	3,995
27 직장인	1,736	1,670	462	3,868
28 출산휴가	1,455	1,538	833	3,826
29 자존감	1,865	1,592	356	3,813
30 연봉	1,213	1,840	496	3,349

- 2015년에 '독박육아'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2017년~2018년 3위, 2021년~2023년 7위
- '맞벌이'의 경우에는 2014년~2015년 7위, 2017년~2018년 8위, 2021년~2023년 4위
-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2014년~2015년에는 화제어 순위에 속하지 못했다가 2017년~2018년 29위, 2021년~2023년에는 13위로 급격하게 화제어 순위 상승
- 이는 과거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반영
- 21~23년 기간에 들어서면서 '생활비', '연봉' 등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된 키워드가 출현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주요 화제어의 유사어 분석: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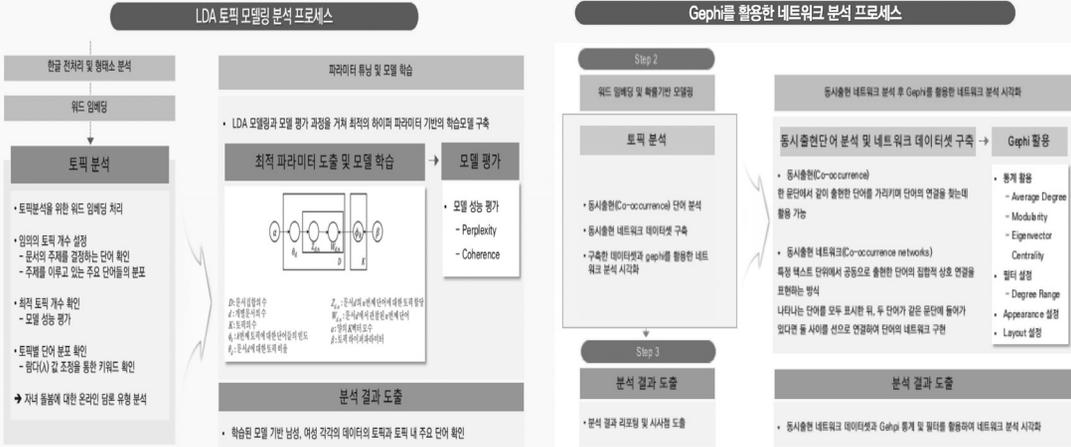
주요 화제어	주요 유사어(연급량 순)				
시간	퇴근	초과	출퇴근	통근	장시간
지원	지원금	가족친화	산후조리	대상자	세액공제
정책	저출산정책	수요자	대책	전략	보완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	통상임금	중소기업	맞돌봄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의무화	불리	평등법	직장인
출산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책	기피	합계출산율
사회	제고	김영미	주체	문재인	포용
정부	대통령	문재인	정권	여당	후미오기시대
돌봄	돌봄서비스	초등학생	병과후	야간	교육부
문제	근본	인구절벽	해결책	해법	요인
제도	유연근무제	의무화	자율	단축근무	맞돌봄
기업	중소	IT	ESG	상생	공공기관
확대	인센티브	세액공제	국공립어린이집	맞돌봄	활성
어린이집	유치원	야간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주요 화제어의 유사어 분석: 소셜

주요 화제어	주요 유사어(연급량 순)				
육아	독박육아	전업	일임	힘들다	고교분투
독박육아	살림	가사일	뒤처리거리	넋두리	구구절절
맞벌이	외벌이	전업	워킹맘	시티비	허리띠
시간	바톤터치	늦잠	체력	휴식	숨통
육아휴직	출산휴가	무급	복직	사기업	경단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빠의달	지급금	무급	복직
회사	직장	사표	야근	업무	고과
사회	만연	관습	풍조	보편	인식
상황	돌발	이해	입장	인일	만약
어려움	가정생활	병행	허형기	경제생활	부담감
이해	입장	이기적	서러움	속내	내색
저출산	출생률	장려책	실효성	대책	체감도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	시티	돌보미	적응
갈등	고부	분열	중재	부부간	기성
출퇴근	지옥철	자차	시티비	칼퇴	바톤터치
재택근무	업무량	유연근무제	원격	삼시세끼	변이웃
우울증	산후우울증	우울감	무기력증	불면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 ☞ **심층분석: 분석 프로세스**
 - LDA 토픽 모델링 분석
 - Gephi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 ☞ **LDA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기간별 남성 중심 소셜 채널의 토픽 유형 변화**

2014~2015년			2017~2018년			2021~2023년		
번호	토픽 Title	문서비중 (%)	번호	토픽 Title	문서비중 (%)	번호	토픽 Title	문서비중 (%)
1	자녀 돌봄 시간 관련	31.7	1	양성평등 및 출산정책	16.9	1	아동 발달 및 부모-자녀관계	17.7
2	아동 발달 및 부모-자녀관계	27.4	2	자녀 돌봄 시간 관련	16.8	2	양성평등 및 출산정책	11.7
3	양성평등 및 출산정책 관련	16.1	3	맞벌이 육아 및 조부모 육아 관련	15	3	자녀 돌봄 시간 관련	10.7
4	가사 참여 및 분담 관련	14.6	4	아동 발달 및 부모-자녀관계	11.8	4	가사 참여 및 분담	10.1
5	임신 및 출산 관련	10.2	5	육아휴직 및 사회문제	7.6	5	젠더이슈 관련	9.3
			6	육아/생활용품 관련	7.3	6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 관련	8.7
			7	자녀 교육 및 혼육/양육 관련	6.9	7	육아/생활용품 관련	8.7
			8	근로 시간 단축 관련	6	8	취미/여가생활 등	8.2
			9	육아휴직 및 사회적 제도 관련	5.9	9	출산 정책 및 지원 혜택 관련	7.7
			10	취미/여가생활 등	5.8	10	육아휴직 및 사회적 제도 관련	7.1

- 2017년~2018년
 - 최적 토픽 수가 10개로 증가하여 보다 다양한 담론의 주제가 형성
 - 양성평등 이슈가 남성 자녀돌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토픽으로 등장
 - 시간정책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및 사회문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육아휴직 및 사회 제도 관련'이 토픽으로 도출
- 2021년~2023년
 - '아동 발달 및 부모-자녀 관계'가 1번 토픽으로 산출
 - '취미/여가생활 등' 토픽은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 자녀돌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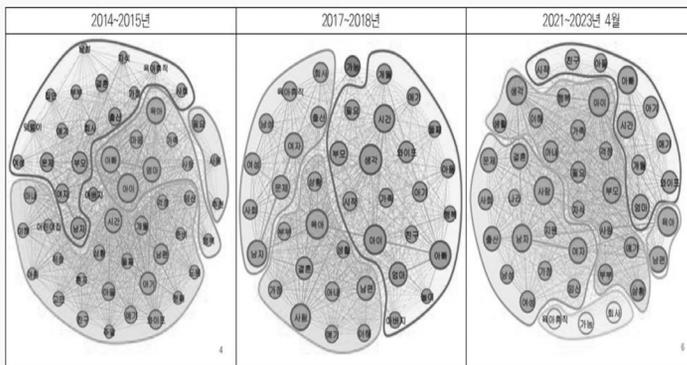
LDA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기간별 여성 중심 소셜 채널의 토픽 유형 변화

2014~2015년			2017~2018년			2021~2023년		
번호	토픽 Title	문서비중 (%)	번호	토픽 Title	문서비중 (%)	번호	토픽 Title	문서비중 (%)
1	양육 및 발달 과정 관련	18.4	1	임신/출산 관련	20.3	1	양육 및 발달 과정 관련	22.8
2	훈육	12.8	2	양육 및 발달 과정 관련	13.9	2	임신/출산 관련	15.1
3	부부 역할분담	12.7	3	부부 역할분담	13.5	3	남성 돌봄 참여 관련	15
4	육아 관련 감정적 경험	9.6	4	교육 및 학습 관련	12.3	4	부부 역할분담	11.6
5	남성 돌봄 참여 관련	9.5	5	사회적 이슈 관련	8	5	휴직제도 및 수당 관련	8.6
6	영유아 보육/진료 행태 관련	9.2	6	남성 돌봄 참여 관련	7.2	6	조부모(시댁/친정) 관련	7.5
7	맘카페 활동 규정	9.2	7	맘카페 활동 규정	7.1	7	교육 및 학습 관련	5.4
8	휴직제도/사회 관련	8.7	8	정보 공유 관련	6.6	8	정보 공유 관련	5.3
9	임신/출산 관련	5.3	9	휴직제도 및 수당 관련	5.5	9	맘카페 활동 규정	4.5
10	영/유아 보육 관련	4.4	10	임신/출산 관련	5.4	10	육아용품	4.1

- 여성 중심 소셜 채널의 기간별 토픽 유형 변화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두드러지는 변화가 적음
- '남성 돌봄 참여 관련', '부부 역할 분담' 토픽의 비중이 2021~2023년에 상당히 증가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Gephi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기간별 네트워크 분석의 키워드 분포 및 군집: 남성 중심 소셜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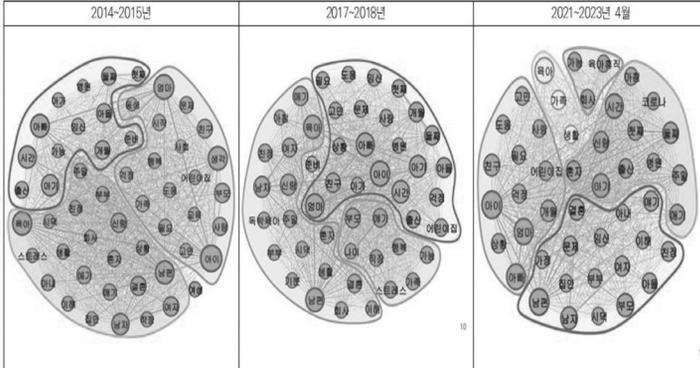


주: 1) 원의 크기가 클수록 전체 키워드 사이에서 가중치가 높은 것을 의미함. 군집의 넓이는 가중치와 상관 없음.
 2) 필터 설정(Degree Range Settings)에 따라 시각화를 위해 각 노드의 엣지 개수 조정
 3) 2014~2015년: 1군집(분홍색), 2군집(파란색), 3군집(초록색), 4군집(주황색)
 2017~2018년: 1군집(분홍색), 2군집(초록색), 3군집(파란색), 4군집(정록색)
 2021~2023년 4월: 1군집(분홍색), 2군집(초록색), 3군집(파란색), 4군집(노란색), 5군집(주황색)

- 2014~2015년 4개 군집: 1군집은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평등 이슈'
- 평등 이슈로는 남녀 간 성평등과 직업에 따른 제도 이용 차별 등에 대한 키워드들이 도출되었음
- 2017~2018년 3개 군집(다른 노드와 연결성 낮은 군집 존재): 1군집은 '일과 자녀돌봄 및 여가활동 관련' 군집
- 남녀, 차별 키워드의 가중치 상승
- 2021~2023년 4개 군집(클러스터 비중이 낮은 군집 제외): 1군집 '일과 자녀돌봄·가사'
- 아버지 자녀돌봄과 관련된 데이터에서 구체적인 제도 사용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구성된 군집이 등장
- 그림에 제시된 키워드 외에 경제, 부담, 포기과 같은 키워드가 등장 2021년 이후에는 남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인식

3. 남성 자녀돌봄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

Gephi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기간별 네트워크 분석의 키워드 분포 및 군집: 여성 중심 소셜 채널



주: 1) 원의 크기가 클수록 전체 키워드 사이에서 가중치가 높은 것을 의미함. 군집의 넓이는 가중치와 상관이 없음.
 2) 밀도 설정(Degree Range Settings)에 따라 시각화를 위해 각 노드의 엣지 개수 조정
 3) 2014~2015년: 1군집(분홍색), 2군집(초록색), 3군집(파란색), 4군집(주황색)
 2017~2018년: 1군집(분홍색), 2군집(초록색), 3군집(주황색)
 2021~2023년 4월: 1군집(분홍색), 2군집(초록색), 3군집(파란색), 4군집(노란색), 5군집(주황색)

- 2014~2015년 4개 군집: 1군집은 '임신-출산 관련'
- 남성과는 달리 임신, 출산이 성평등 이슈와 크게 연결되지는 않았다
- 2017~2018년 3개 군집(다른 노드와 연결성 낮은 군집 존재): 1군집은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 아이, 엄마, 시간, 친구, 어린이집, 걱정, 출산, 임신, 고민, 상황, 도움이 핵심 키워드였으며, 이외에 미안, 신경, 노력, 워킹맘 등의 키워드도 등장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 미안함 등 심리적 압박 확인
- 2021~2023년 5개 군집: 1군집 '육아가사 분담과 조부모 참여'
- 2 군집 '아동 발달 및 양육 관련' 군집 키워드를 통해 최근 들어 아동발달 및 양육 관련 상담, 치료, 검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



4. 남성 자녀돌봄 정책 담론 분석: 독일 사례

독일 남성 자녀돌봄 정책 담론의 등장

- 1980년대 중반부터 아버지와 부성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
 - 생계부양자로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남성보다 양육자로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아버지됨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
 - 아버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하고 장기적인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 '사회적 재생산 위기' 담론
 - 독일은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가정에게 일임하여 가족 내 돌봄 공백 증가에 대처를 못하였고, 이는 출산을 포함한 가족의 재생산 기능의 약화를 가져옴.
 - 이러한 배경에서 '돌보는 남성성'의 개념이 주목을 받음.
- '돌보는 남성성',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담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독일의 가족정책의 담론 변화에 영향
 -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가족정책(Nachhaltige Familienpolitik)을 추진하면서 가족시간(Familienzeit) 강조, 가족 시간정책(Familienzeitpolitik) 추진
 - 2001년에 부모시간(Elternzeit), 2007년에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 및 아버지 할당제가 도입

4. 남성 자녀돌봄 정책 담론 분석: 독일 사례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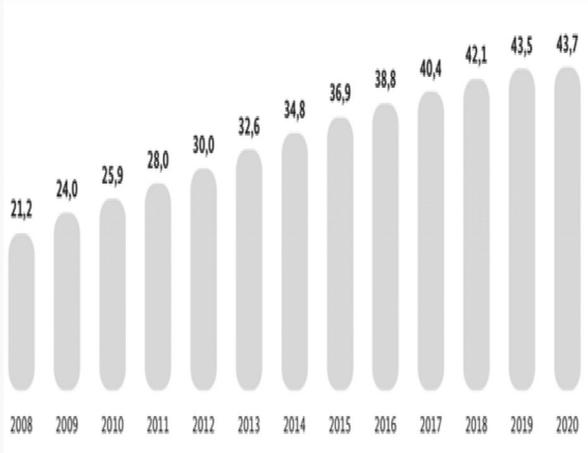
- 파트너 관계성(Partnerschaftlichkeit)
 - 독일 사회민주당의 정책 담론이었으며, 정책 담론 경쟁 속에서 기독교연합당의 '선택의 자유' 담론 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독일의 남성 참여를 위한 시간정책, 성평등한 시간정책 형성에 결정적 역할
 - 파트너십(Partnerschaft)을 강조해왔으며, 파트너십 개념이 평등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파트너관계성(Partnerschaftlichkeit) 개념으로 발전
 - 파트너관계성 담론은 평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일가족 양립을 위해 협력하고 돌봄 및 가사일 등 가족과 관련된 일을 분담하면서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을 의미(박은정, 2019)
 - 아버지 할당제인 아버지달(Vätermonate)을 포함하는 부모수당(Elterngeld)의 도입과정
 - 부모시간 유연화는 부모수당플러스, 파트너십보너스 제도의 형태로 2015년에 도입
- 적극적 아버지상(Aktive Vaterschaft)
 - 2013년 독일 연정협약서는 '적극적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역할 담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일가족양립 정책의 목표로 제시
 - 연방가족부에서 2018년부터 '아버지 보고서(Väterreport)' 발행: '적극적 아버지' 담론에서부터 출발

• 파트너십보너스: 부모가 모두 주당 25~30시간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자녀 돌봄을 함께 할 경우 부모수당플러스를 4개월 추가 지급하는 제도
 •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 출산 후 주당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최대 28개월간 부모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어머니와 동일하게 자녀 양육과 안넌에 대한 책임을 느낌
 -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동의 역할 분담에 관심이 있음
 - 파트너와 부모수당(육아휴직)을 함께 사용
 - 자녀와 따뜻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
 -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냄

4. 남성 자녀돌봄 정책 담론 분석: 독일 사례

☞ 아버지의 부모수당 사용을 추이: 독일 2008~2020년 출생아



- 제도 도입 1년 후인 2008년에 태어난 출생아 아버지 중 부모수당 사용률은 21.2%였으나, 2020년 출생아 아버지의 경우는 43.7%로 2배 이상 증가
- 아버지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수당 사용률 상승
- 고학력 아버지(39%)가 저학력 아버지(22%)보다 부모수당 사용률이 높음.
- 부모시간 사용 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경우 8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용 경험이 없는 아버지는 51%가 긍정적으로 평가(2개월을 초과하여 부모수당을 사용한 아버지의 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이후 완만한 증가 추이
- 2020년생 자녀의 아버지들의 부모수당 평균 사용 기간은 3.3개월(BMFSFJ, 2023: 32~33)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k zum Elterngeld; BMFSFJ(2023), Väterreport 2023, p.33에서 재인용.

4. 남성 자녀돌봄 정책 담론 분석: 독일 사례

☞ 최근 독일 남성 자녀돌봄 시간정책

- 기존 정책 담론의 지속 및 확장
 - '파트너관계성' 정책 담론이 반영된 부모수당플러스와 파트너십보너스는 아버지들의 부모시간 사용을 더욱 촉진
 - 부모수당의 긍정적 효과가 공식화됨에 따라 '적극적 아버지상'의 정책 담론은 지속적인 확장
- 최근 독일 시간정책에서 강조점
 - 정책 추진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기업의 가족친화성, 아버지 친화성 강조
 - ※ 성공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 독일 연방가족부와 독일 상공회의소(DIHK)에서 2007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족친화적인 일자리 조성을 위해 기업 관련 주요 이해관계들이 전략적인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인재 확보에서 경쟁력 있는 요인으로 자리 잡도록 기여
 - 파트너관계성 및 아버지 참여 강화: 개인별로 부여되는 부모수당의 개월수는 늘리고, 부모에 동시 지급되는 부모수당은 한 달로 제한하는 방안
 - ※ 부모는 각 3개월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8개월은 파트너 간에 자유롭게 분할 사용.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각 3개월과 함께 사용하는 1개월을 합쳐 7개월 동안 소득대체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식



5.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의 기본방향

- 기본방향 1 모든 부모와 아동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돌봄권 보장
- 기본방향 2 부모의 일·자녀돌봄에서의 시간주권 보장
- 기본방향 3 돌보는 남성을 전제로 한 시간정책 구축

5.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을 통한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5.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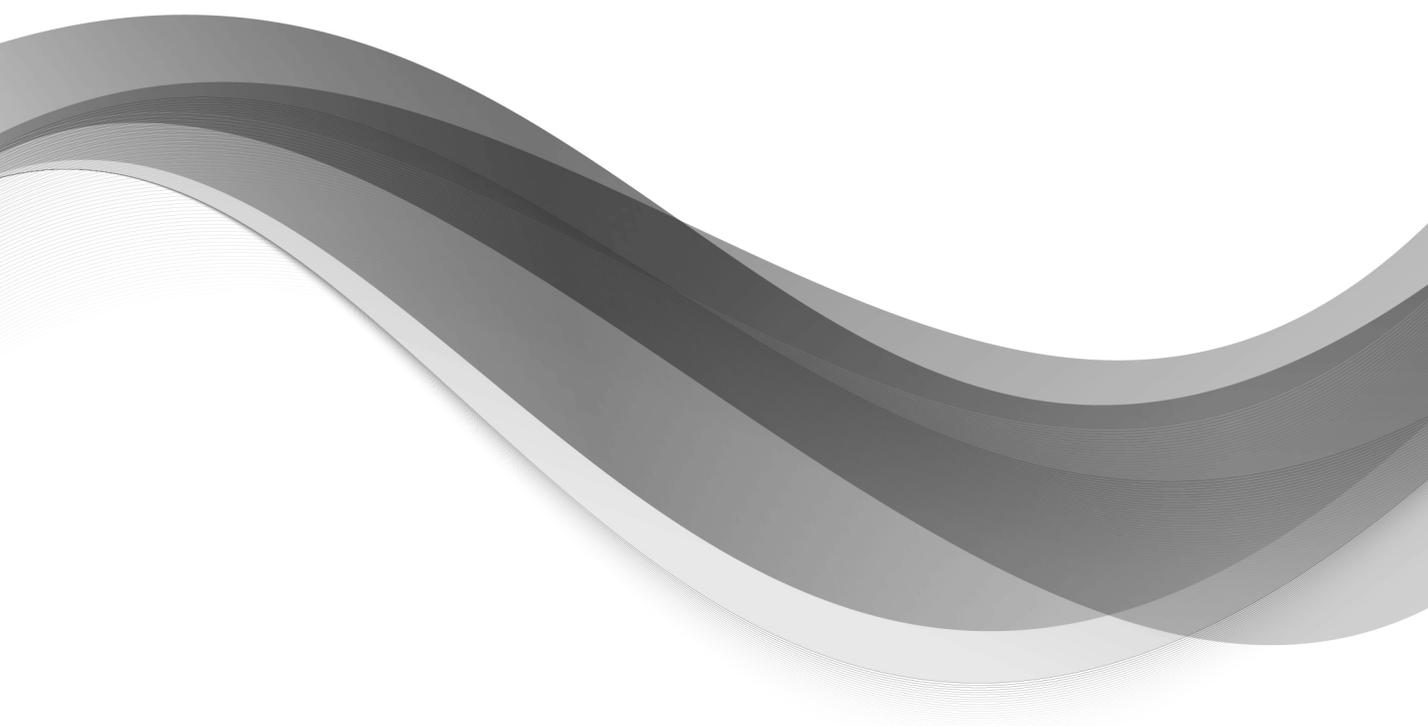
정책과제	세부 추진 방안	정책과제	세부 추진 방안
정책과제 1: 제도 사용의 편의 및 유연성 확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동 신청 제도 • 육아휴직 6+6 특례 제도의 자녀 연령(초등입학시기) 확대 적용 • 비임금근로자 대상 배우자출산급여 제도 도입 	정책과제 6: 기업의 제도 추진 지원을 위한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 가족친화경영 위원회 조직 구성
정책과제 2: 실질소득대체를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 최저임금 수준에 근거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상한액 상향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정책과제 7: 남성의 육아 및 시간정책 사용 관련 인식 개선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 기업 대표 및 경영진 대상 인식 개선 교육 • 아버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및 캠페인 영상 제작 배포
정책과제 3: 맞춤형 유연근로제도 확대 및 적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 유연근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지원 • 맞춤형 육아기 유연근로제 실시 • 지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상 출퇴근 교통편 지원 	정책과제 8: 아버지 대상 교육, 상담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 공공과 민간 부문을 활용한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화폐 및 복지포인트 지원 제도 도입 • 아버지 네트워크 및 남성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 기간 및 복귀 전후 아버지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정책과제 4: 기업 대상 인센티브 강화 및 체감도 높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 업무 분담 지원금(동료지원금) 지원 제도 도입 • 기업 대상 수요 중심의 컨설팅 제공 • 육아휴직 사용자 수 및 사용률에 따른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 지역별 대체인력뱅크 확충 및 비용 	정책과제 9: 지자체의 시간 지원 자체 사업 활성화 및 중앙-지자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 중앙정부의 우수 지자체 자체사업 선정 및 지원 • 우수사업 발굴 후 시범사업 및 전국화 추진
정책과제 5: 기업의 역할 및 실행 관리,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진] 기업의 휴가·휴직제도 고지 및 사용 권장 의무 부과 • 관리·감독 전담 기구 설치 		

감사합니다.



지정도론

함선유 부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형 연구위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민정 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정토론 1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자녀돌봄시간: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 자녀돌봄시간 및 부부의 돌봄배분 분석”에 대한 토론문

함선유 부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 연구는 비전형적인 노동형태에서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표준적인 근무시간에 따라 돌봄 권리의 확보가 어떻게 저해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비표준적인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의 정규근로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야간, 비정기적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시간과 같은 불안전 근로시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정규근로시간을 상정하는 공적 보육 시스템이나 안정적인 일과를 이어나가야 하는 아동 돌봄 자체의 속성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 자녀돌봄시간,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배분 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함.

- 그러나 실제 분석결과에서 살펴보면, 시간의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제외하고) 남녀 모두 비표준적인 근로형태에서 아동돌봄의 시간이 더 많은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비표준적인 근로형태일 경우 전일제 정규직 종사자에 비하여 시간적 유연성이 높거나 근로 시간 자체가 짧아서 아동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시사함.
 -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평균적 근로시간이 짧은 것 중 어떠한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는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또다른 가능성은 본 연구의 대상 집단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음.
 - 비전형적인 노동형태 중에서도 비표준적인 고강도의 근무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애초에 혼인과 출산에 이르지 못하면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집단에 체계적으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자료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택배업 일자리의 경우 직접 돌봄이 아예 불가함.

- 본 연구에서는 성별로 일관될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그럼에도 성별로 비표준적인 고용형태에 배치된 양상과 산업, 직업적 특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
 - 남성의 경우 정규직 시간제인 경우 돌봄시간이 정규직 전일제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둘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남성이 시간제임에도 돌봄시간이 더 길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 필요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결과 역시 남성과 여성이 다름.

- 한 가지 가능성은 여성의 경우 돌봄을 위하여 시간제 일자리 등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돌봄을 위해 비표준적 일자리로 이행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여성 자체의 특수성도 있을 것임(예를 들면 산업군).
 - 추후 성별 일자리 차이가 결국 두 집단 사이의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해 보임.
- 고용형태별로 다양한 기술통계 제시를 통하여 어떠한 인적, 산업적, 직업적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논의되면 좋겠음.
- 남성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성을 언급하였으나, 실제 정규직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시간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특수고용형태의 경우 돌봄 시간이 길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보임.
 - 또한 남성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초적인 분포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정규직, 전일제 취업자의 돌봄시간 확보가 여타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에 있는 이들에 비하여 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정규직, 전일제 취업자들의 경우 돌봄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음.
 - 일반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커리어”가 있는 일은 “가차 없는 밀도로 불규칙한 일정에 대응해가며 장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높은 보수를 지급(골딘, 2021: p.23)”하는 속성을 지님. 즉, 정규직 일자리가 금전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의미할 수 있으나, 경쟁의 밀도나 노동의 강도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함.
 - 후속 연구에서는 비전형적 일자리가 가질 수 있는 속성, 즉,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비표준적인 근무 시간이나,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보다는 근무 시간의 속성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정토론 2

남성 양육자의 돌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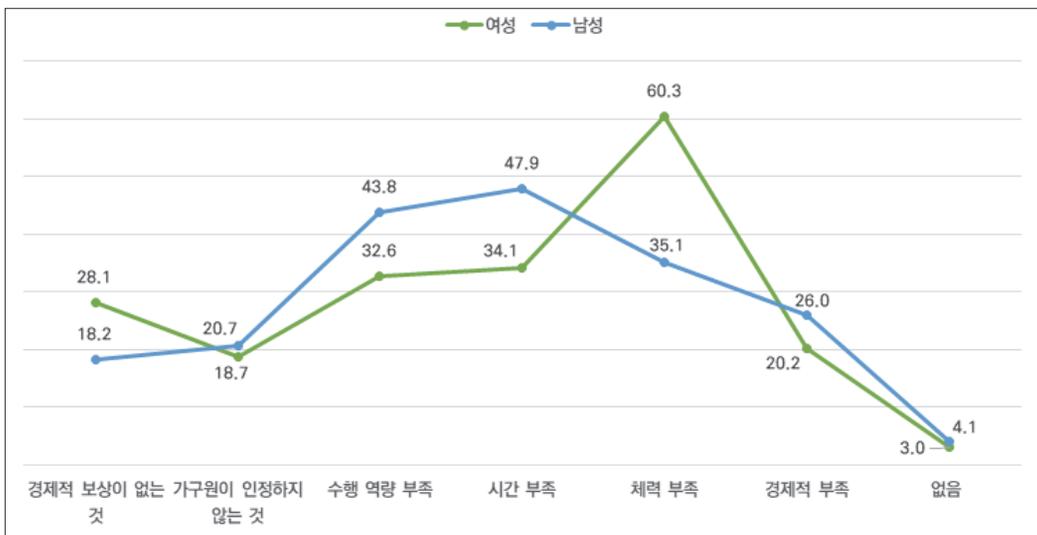
이선형 연구위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는 2023년 10월부터 남성 양육자와 0~9세 자녀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선 8기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2개 자치구¹⁾ 가족센터에서 시행 중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녀 발달 이해, 의사소통, 맞돌봄 등 세 개의 주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두 번째 발표인 이현아 교수님의 연구는 이 프로젝트의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지역 가족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남성 양육자의 실질적인 돌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 저희 재단 연구 결과에서도 돌봄노동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돌봄 역량 부족의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남성들의 돌봄 참여 활성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 1] 돌봄의 어려움(성별)

(단위: %)



출처: 이선형·김우영(2023), 『서울시 가족성평등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임.

이번 토론에서는 이 같은 서울시 사업이 향후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맞돌봄”이 주제인 3회기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사례와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맞돌봄 방법, 함께 하는 양육을 증진시키는 놀이 방법 소개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3회기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홍보 자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2) 남성 양육자의 돌봄 역량 강화를 통해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신 3회기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자치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남성 양육자 중에서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의 남성 양육자의 경우 영·유아기 자녀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매뉴얼 개발 과정에서 이 같은 다양성을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한 자치구 센터에서 10명~12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다양한 양육자 고려는 쉽지 않아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향후 확대 과정에서 자녀 연령 이외에 남성 양육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 갈등적인 가족 관계, ‘독박 육아’의 어려움 등

셋째,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또는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역시 이 같은 양육자의 돌봄 시간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육아, 행복한 아빠 엄마”를 위해 서울시 가족센터의 사업 또는 정책으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버지 교육(70분), 아빠-자녀 상호작용 놀이(20분)/ ‘아이 말을 잘 듣고, 잘 말하는 아빠 되기’ 등(출처: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https://familyseoul.or.kr/>])

‘돌봄자, 새로운 아버지됨으로의 전환과 시간정책’에 대한 토론문

강민정 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의 함의와 필요성

- ‘남성의 돌봄권’을 주제로 진행한 본 연구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정책목표에 맞게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함.
- 특히 그전까지는 ‘남성의 돌봄 참여’로 수동적 방식으로 남성의 돌봄을 촉진했다면, ‘돌볼 수 있는 권리’라는 남성을 주제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더 그러함.
-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추진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사적 영역 즉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성평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이 균형 있게 진전해나가기야 하는 문제임.

□ 연구내용 및 방법

-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규모 FGI를 실시한 연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임. 이전부터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FGI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한 그룹도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2023년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꽤 늘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 이후 발간된 보고서를 봐야겠지만,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가독성이나 보고서의 전체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연구자로서 다 담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임. 여력이 된다면 이 자료를 재분석한 논문이나 이슈페이퍼 등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보고서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담기겠지만, 발표자료에는 전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FGI를 구성할 때 나누었던 집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지도 궁금함. 예를 들어 직종의 차이, 맞벌이 여부의 차이, 우수기업 여부의 차이 등등. 또한 참여한 남성의 개별 특성(자녀수, 학력, 성평등 인식수준 등)에 따른 차이는 없는지 등도 다루어볼 수 있으면 좋을 듯함.
- 육아휴직 사용 남성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결과 역시 남성들의 돌봄 참여의 수준이나 육구가 일반적인 남성 평균보다 높았을 것으로 예상됨. 여전히 일반적인 남성의 돌봄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남성 육아참여의 어려움을 부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육아참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자녀와의 친밀성 증대나 부부 및 가족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거나. 이런 점들이 남성의 돌봄권 회복의 필요성이 될 수 있을 것임.

- 우수기업 사례가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함. 롯데가 물론 우수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언론에 워낙 노출이 많이 되었던 기업이라 식상한 감이 있음. 여성비중이 적은 업종이나 중소기업이거나 새로운 기업이거나 좀 더 임팩트 있는 우수사례 발굴이 이루어졌으면 함.
- 소셜빅데이터 분석도 매우 흥미로움. 그러나 방대한 분석내용에 비해,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 나타난 결과에 대해 좀 더 해석이 이루어졌으면 함. 예를 들어, 시간을 나눈 것은 정책의 변화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과 결합하여 현상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분석 목적에도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방안 도출’을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분석결과에서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정책 개선방안

-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정책방안을 구조화한 점 높히 평가함. 다만 세부 정책과제 및 방안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체계에서 적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제안한 제도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 큰 틀에서는 고용보험 내에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정책들인데 이럴 경우 재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예를 들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자동 신청 제도’는 어떻게 설계하는 것인지? ‘비임금근로자 대상 배우자출산급여 제도 도입’의 대상은 어떻게 규정하고 적용할 것인지? 고용보험 대상확대와도 관련이 있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비율을 확대하거나 상한을 높이거나 하한을 높이거나 등 보장수준을 높이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상한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앞서 FGI에서 남성들이 육아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잘 드러났는데, 네트워크나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남성에게 맞는 제도인지 잘 모르겠음.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 남성칸에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을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물리적 지원도 필요함(특히 문화센터 등 자녀동반 건물). 정책과제8이 남성의 돌봄권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들이 남성에게 적합한지, 아버들의 수요가 잘 반영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좀 더 남성들에게 접근성 높은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